

3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780.86 (-23.45)	829.91 (-17.24)
금리 (연이자율)	환율 (원/달러)
3.169 (-0.041)	1388.20 (+8.90)



## “2030년까지 시총 200조, 소재분야 초일류기업 도약”

**포스코그룹 CEO 타운홀 미팅**  
장인화 회장, 혁신·미래비전 제시 매출 2배, 영업이익 4배 성장 목표 철강·이차전지·신소재 사업 강화 투명한 지배구조·신뢰 경영 추진



1일 포항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가운데)이 직원들의 의견에 밝은 미소로 화답하고 있다. /포스코

“한계를 넘어 과감히 혁신하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오는 2030년 그룹 합산 시가총액 200조원의 소재 분야 초일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그룹 합산 매출액을 2배로, 영업이익을 4배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포스코그룹은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장인화 회장 취임과 함께 시작한 100일 현장동행 마무리하고 7대 미래혁신과제 중간점검과 함께 포스코그룹이 만들어갈 미래 경영비전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는 ‘최고경영자(CEO)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포스코그룹 회장이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회장은 “그룹 사업과 경영체제 및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본원경쟁력과 신뢰를 회복하면서 한계를 넘어 과감히 혁신하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자”며 “철강과 이차전지소재 및 신소재를 축으로 2030년 그룹 합산 매출액은 2배, 영업이익은 4배로 성장해 그룹 합산 시가총액 200조원을 목표로 소재분야 최고의 기업가치를 가진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자”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장인화 회장은 ‘7대 미래혁신과제’의 중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철강, 이차전지소재, 신사업 발굴·사업회사 관리, 신뢰받는 경영체제·기업문화 총 4부분으로 나눠 발표하면서 ‘2030 소재분야 글로벌 최고 기업가치 달성’이라

는 그룹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우선 철강은 제조원가 개선과 판매 및 구매 경쟁력 제고로 2300억원의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효과를 거뒀다. 탈탄소 전략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녹색전환을 위해 하이렉스(HyREX) 기술개발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하는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차전지소재는 기존 공정의 생산성 향상부터 원료 수급 및 판매처 다변화,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재검토 등 그룹 전체 밸류체인 의 질적 개선안을 도출했다.  
또한 ‘전기차 캐즘’ 시기를 시장선점을 위한 내실을 다질 기회로 보고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연호와 북미·호주의 광산·자원회사와 협업 등 우량 자원에 대한 투자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필연적으로 다가올 전기차 시대에 대비해 글로벌 성장시장 중심으로 철강과 이차전지소재사업을 함께 진입해 시너지효과도 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그룹 성장축이 될 수 있는 신소재 분야도 5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취임과 함께 출범한 ‘거버넌스 혁신 TF’를 통해 보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선임 및 평가 프로세스를 개선해 이사회 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CEO후보군의 체계적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내 및 글로벌 기업에게도 롤모델이 될 것을 약속했다. 또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신뢰회복을 위한 ‘신윤리경영’ 체계를 정립하고 CEO가 직접 전그룹사로 전파하는 ‘윤리대담’을 신설했다. 또 그룹 준법·윤리경영 자문역할을 수행할 환경·사회·지배구조(ESG)전문가,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포스코 클린 위원회’를 설치한다.  
장 회장은 “임직원들의 소중한 열정에 감사와 함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인지 확신을 주고 싶었다”며 “경영진들이 한발 더 가까이 가고 솔선수범해 서로를 신뢰하는 윈윈이 되자”고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신사업 속도내는 JY... 내부선 노조 ‘몽니’

**삼성전자 수장-조직 상반행보 이재용 회장 내외부 전열 재정비 전삼노, 8일부터 4일간 총파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판민전 베트남 총리를 만났다. /베트남 관보 VGP

삼성전자의 수장과 내부 조직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용 회장은 방한 중인 베트남 총리를 만난 데 이어 국내 사업장을 연일 방문해 내외부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다만, 재계와 삼성 안팎에선 전국삼성전지노동조합(전삼노) 총파업은 소수 강경 조합원을 위한 명분 없는 선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신사업 발굴 강행  
2일 베트남 관보 VGP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 호텔에서 방한 중인 판민전 총리와 개별 면담을 갖고 다양한 협력 확대 방안에 논의했다. 3일에는 판민전 총리가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판민전 총리와 만나 베트남 공장을 글로벌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모듈 생산기지로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집중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어 지난 16년간 베트남의 발전과 함께 삼성전자와 베트남 간 협력 관계가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평가하며 “베트남의 성공은 삼성의 성공이고 베트남의 발전은 삼성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판민전 총리는 “베트남은 투자 환경의 안정성, 경쟁력 등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자 지원 기금 설립,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전략적 생산 기지로 고려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체인 다양화와 핵심 제품의 연구 개발 및 생산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최근 미국 출장 이후 국내 사업장을 연일 방문하며 내부 전열을 재정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1일 삼성전기 수원사업장을 찾아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으로 부터 신사업 개발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그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사람의 눈은 몇 화소냐”고 묻는 등 “신사업 개발 성공하세요”, “삼성전기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며 직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집 사자’ 6만명 몰린 청약 특공 과천·마포 등 수도권 중심 후끈

과천 디에트르퍼스티지 127대 1 마포자이힐스테이트 58대 1기룩  
유형별로는 66세대를 배정한 생애최초에 2만3909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362대 1에 달했다. 각각 74가구씩 배정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도 9149명과 2809명이 청약했다.  
과천 디에트르퍼스티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마지막 민간 아파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주변 시세 대비 크게 낮은 분양가로 예비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전용면적 59㎡만 공급되며, 분양가는 7억 6835만~8억 7035만원이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7억원 안팎이나 차이가 난다. 인근 ‘과천위버필드’의 전용 59㎡는 지난달 15억원에, ‘과천자이’ 전용 59㎡도 지난달 14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는 특별공급 경쟁률이 58대 1을 기록했다. 213가구 모집에 총 1만 2535명이 신청했다.  
유형별로는 생애최초가 38가구 모집에 7287명이 청약해 경쟁률이 191대 1에 달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오후 불출석... 검찰 “소송 지휘 반해” /사진 뉴스스  
▲ 한-베트남 총리회담... 한 총리 “가장 믿음직한 상생 협력 파트너”

▲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이종배, 법 개정안 발의  
▲ 한동훈, 5일 서울시청서 오세훈과 조찬 회동



▲ 윤상현 “보수혁명으로 승리할 것... 한동훈, 총선 참패 책임져야” /사진 뉴스스  
▲ 김기현, 한동훈 “인위적 지원” 발언에 “당원 자존심 폄훼, 사과하라”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노사 평행선... 표결 놓고도 갈등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합의 불발  
사용자, 편의점 등 구분적용 제안  
근로자, 노동자 삶 더 피폐해질 것  
공익위원 '표결' 제안도 반대입장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익위원 측이 표결을 제안했으나, 근로자 측이 반대하며 난항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 구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용자 측은 앞서 한식음식점업, 외국인음식점업, 기타간이음식점업과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위원들은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 있고 최저임금 취지와도 맞지 않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스시

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로자 측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조차 업종별 차별 적용은 지금의 노동 환경 구조나 통계 구축 문제 등으로 업종별 차별 적용이 쉽지 않음을 공감한 바 있다"며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음식점업에 대

해 경영 및 인력난, 지불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도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 위원들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경영계가 담당 3개 업종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만들어주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

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 측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수용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사용자 측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은 이제 정말로 한계에 왔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는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숙박 음식점은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열악한 업종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현실적인 부분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숙박음식업 전체보다는 영세자영업이 대부분인 한식집, 분식집 같은 식당들이 포함된 음식점 세부 업종 3개만 구분 적용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시장 외부자 측은 퇴환 고령자, 미숙련 노동자 등의 소득을 높이려면 취업 기회를 제공해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은 취약업종 내 취약 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아 이들을 좀 더 많이 고용해 소득 분배 개선을 달성하려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소비자물가 2.4% 상승... 11개월 만에 최저

통계청, 6월 소비자물가동향  
가공식품 인상 지연 등 둔화 기여  
'유가 상승세' 물가불안 불씨 남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오름 폭을 보였다. 가공식품 가격인상 지연을 위한 정부-업계 간 협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할당관세 적용 등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또 제철과일 출하를 비롯해 전기·수도·가스 요금 동결 등도 상승폭 둔화에 기여했다. 단, 휘발유·경유 등의 유가는 언제든 물가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불씨로 남아 있다. 석유류 가격은 6월 들어 1년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인 4.3%를 기록하는 등 최근 4개월째 오름세를 이어 갔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4%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2.4%) 이후 최저 상승폭이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월(3.1%)과 3월(3.1%) 3%대에서 4월

(2.9%)과 5월(2.7%)에 2%대로 내려온 바 있다. 이후 6월 들어 2.5% 선마저 밀린 것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상승폭은 확대됐는데 그 외 농산물, 전기·가스·수도, 가공식품 등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수도·가스는 요금 동결로 기저효과가 발생해, 2021년 9월 0.1% 이후 33개월 만에 최저 상승"이라고 말했다.

과일 값은 여전히 1년 전과 비교해 오름 폭이 컸다. 하지만 전월 대비로는, 제철과일이 출하되면서 오름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 심의관은 "날씨가 좋아 채소는 하락으로 돌아섰고, 제철과일 대부분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며 "(특히) 참외·수박 등의 가격이 전월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도시가스(0.5%)와 지역난방비(7.3%), 상수도료(3.4%)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0.9% 오르는 데 그쳤다. 또 라면(-5.0%) 등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이 1.2%에 머물렀다. 가공식품 물가 오름 폭은 2021년 2월 이래 40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문제는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이다. 국제유가가 상승 전환함에 따라 국내 석유류도 올해 3월 14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그 이후 4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특히, 지난달 4.3% 오르며 2022년 12월(6.3%)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8% 올랐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2% 중종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누적된 고물가로 인해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부연했다. 그는 "7월은 여름철 기후영향, 국제유가 변동성 등으로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먹거리 등 민생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경제 6단체,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손경식(왼쪽 세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경제 6단체 대표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손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뉴스시

## 尹 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 후임 거론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홍일 방통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초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었지만,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로 인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입법조사처에서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고 의정실에서 그런 입장을 취해 추진하지 않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사퇴를 선택한 것은 방통위 업무 중단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인다.

만일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은 최장 180일까지 직무 정지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 또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김 위원장은 현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임도 할 수 없다.

비슷한 사례로는 전임자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가 있었다. 이전 위원장도 국회의 탄핵소추를 앞두고 지난해 말 사의를 표했다. 야당이 주도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 전 자진 사퇴하는 상황이 1년 새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자진사퇴가 반복되는 데 대해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명백하게 어떠한 위법 사항으로 이렇게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지, 그 근거가 그렇게까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

## 마포자이, 평당 5150만원... 전용 84㎡ 17.4억

>> 1면 '집 사자, 6만명 몰린...'서 계속

신혼부부가 79가구 모집에 3980명 접수로 50대 1, 다자녀가구가 43가구 모집에 1049명이 신청해 24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5150만원으로 강북에서는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전용 84㎡ 기준 16억4000만~17억4000만원 선이다. 당초 강북 최고 분양가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시장에서 무난하게 소화되면서 강북도 평

당(3.3㎡) 분양가 5000만원 시대가 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 분양업계 전문가는 "특별공급은 조건이 생애 한 번만 쓸 수 있거나 한정적이어서 몇 만명이 몰리거나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기가 쉽지 않다"며 "보통 본 청약에 앞서 특별공급 경쟁률로 분위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대부분 크게 흥행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 산성동에 지어지는 산성역 헤리스톤 특별공급도 604가구 모집에 7118

명이 신청해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가 33세대 모집에 1688명, 생애최초가 16세대 모집에 4856명이 신청했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9억원 안팎, 전용 84㎡가 11억원 안팎이다.

고양시 일산 동구에 들어서는 고양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507세대인 특별공급 청약에 1959명이 신청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전용 84㎡의 분양가가 7억원 안팎에서 공급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K-조선 대약진

# 자율운항 등 10대 플래그십 기술개발... 10년간 2兆 투자

### 산업부 '초격차 비전 2040'

LNG선 이을 新성장동력 육성  
조선 공정 무인화율 50% 목표  
"세계 1위 굳건히 지켜나갈 것"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일 부산 강서구 파나시아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K-조선 Tech 얼라이언스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와 조선업계가 2040년까지 완전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와 탄소 배출 제로 선박 기술 개발, 조선 공정 무인화율 5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조선업 초격차 기술개발을 위해 민관이 향후 10년간 최소 2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강경성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 파나시아에서 '2차 K-조선 기술 얼라이언스'를 개최하고 조선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청사진을 담은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산업부가 지난 6개월간 조선 3사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과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

우선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선박 기술 포트폴리오 완성을 목표로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추진 기술

및 친환경 혁신 기자재와 원유·가스 등 전통 해양플랜트를 넘어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연료 생산 플랜트 기술 등을 개발한다. 또 LNG(액화천연가스)선 이후의 우리 먹거리를 책임질 액화수소 운반선 화물창, 대형 전기추진선박 등 원천기술 확보와 해상 실증 등 상용화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공정 무인화율 50%를 목표로 설계-생산-야드 운영 등 전 공정의 자동화 기술을 확보한다. 특히, 고위험·고

난도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용접·도장 자동화 기술과 협동 로봇 기술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자동화 선박 블록 공장 기반 기술을 확보해, 시험 공장(Test Bed)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2040년까지 완전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를 위해 무인 항해에 필요한 센서, 기자재, 통합 운영 시스템 등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또 승조원의 업무를 휴먼-로봇이 보조할 수 있는 기술과

비상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 확보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아울러 이같은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2040년 K-조선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민관이 원팀으로 향후 10년간 최소 2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선박용 탄소포집시스템,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무인 자율제조 공정 등 10개 프로젝트는 향후 혁신·도전형 기술개발,

실증(트랙레코드 확보), 표준화까지 지원해 LNG선을 이을 우리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한편, 정부와 조선 3사는 생산공정 효율성 개선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용접 협동로봇 ▲가상현실(VR) 활용한 근로자 용접·도장 교육 시스템 ▲외국인 근로자 현장 작업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챗봇 ▲조선사-협력사와 생산 협업 플랫폼 개발 등 4가지 현장 대응형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대응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강경성 1차관은 "민관이 함께 비전 2040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간다면 2040년 조선산업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와 금년 상반기 기준 역대 2위 수출액을 기록한 만큼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 애로 해소, 선제적 규제 완화 등에 총력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조선3사, 친환경 순풍에 쾌속질주... 상반기 수주 '잭팟'

### HD한국조선해양

연간 수주 목표액 91% 달성  
삼성중 LNG선 등 22척 수주  
한화오션 작년 수주총액 돌파

국내 조선 3사가 친환경 선박 바람을 타고 올해 상반기 대규모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HD한국조선해양은 반년 만에 연간 수주 목표액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삼성중공업도 올해 수주 목표액의 50%를 넘겼으며 친환경 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전략을 이끌어 가면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

이고 있다.

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LNG 운반선 8척, PC선 52척, LPG·암모니아 운반선 36척 등 올해 총 116척(해양 1기 포함), 123억 5000만달러를 수주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인 135억달러의 91.5%에 해당하는 수치다.

선종별로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8척, PC선 52척, 액화석유가스(LPG)·암모니아운반선 36척, 에탄운반선 1척,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2척,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6척, 탱커 3척, 자동차운반선(PCT

C) 2척,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FSRU) 1척, 해양설비 1기, 특수선 4척 등이다.

삼성중공업도 지난 1일 중동지역 선주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4척(계약 규모 1조 4000억원)을 수주하며 실적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선박은 2028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2척, 49억달러를 수주했다. 올해 수주목표(97억달러)의 51%를 달성했다. 수주한 선박은 LNG운반선 19척,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2척, 서플탱

커 1척이다. 현재까지 수주잔고는 337억달러에 달한다.

별도로 수주 목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한화오션은 LNG운반선 16척, VLCC 7척, 초대형암모니아운반선(VLAC) 2척, 초대형LPG운반선(VLGC) 1척, 해양 1기 등 총 27척을 수주했다. 액수는 약 53억 3000만달러로, 6개월만에 지난해 수주총액 35억 2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조선업계가 이같은 수주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배경에는 글로벌 탈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운업계가 대응에 나선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등 각국은 수출기업에 기후 위기를 명분으로 탄소 관련 공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 생산 과정은 물론 협력사, 유통 과정 전체 주기에 걸친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는 '스코프3' 공시 제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EU가 2026년부터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디지털제품여권(DPP) 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수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선가 하락이 예상됐던 컨테이너선도 수에 즈음한 사태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내 조선 3사의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과 맞물려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중소기업계, 베트남 총리 면담... '한국형 산업단지' 등 협력 논의 노조리스크 발목... '명분없는 파업' 비판 쇄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여  
11월 '한·베 투자협력 포럼' 개최

중소기업계가 베트남에 네거티브 방식의 '한국형 산업단지' 시범 조성을 적극 검토한다.

11월엔 베트남에서 '한·베 투자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베트남 정부에 한국 기업은행의 베트남 법인 인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회장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대표단이 지난 1일 저녁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을 방문한 판 민 쩌(P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를 만나 양국 중소기업 현안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왼쪽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판 민 쩌 베트남 총리,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지난 1일 저녁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날 한국측에선 김 회장 외에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영남 노바사이지 회장이 참석했다.

베트남측에선 판 민 쩌 총리 외에 응우

엔 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응우엔 흥 지엔 산업무역부 장관, 판 판 하 중 앙은행 부총재, 응우엔 민 부 외교부 1차관, 부 호 주한베트남 대사가 함께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대표단은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여 년 동안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함께 육성해 나갈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한·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베트남 주재원 비자 발급 애로 해소 ▲여름철 전력 공급 불안정 해소방안 마련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간소화 등 베트남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 애로를 전달하는 동시에 베트남 현지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 1면 '신사업 속도내는 JY'서 계속

이 회장은 최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앤디 재시 아마존 CEO 등을 만나 미래 사업 전략을 구체화했다.

### ◆전삼노 4일간 총파업 선언

전삼노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삼노는 노조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 무노동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삼노 측은 "사측은 어용노사 협의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2024년도 기본 임금 인상률 3.00%를 거부한 855명을 포함, 전 조합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하라"며 "경제적 부가가치(EVA) 방식의 불투명한 초과 이익 성과급(OPI)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회박되고 있는 반도체 사업에

노조 리스크가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삼노가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하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전삼노 조합원 대부분은 DS부문 직원들로 지난달 29일 기준 전체 직원의 약 22% 규모인 2만 8397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와 삼성 내부에서는 전삼노의 파업을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원들이 그동안 회사의 사업 부진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과 소수 강경 조합원을 위한 명분 없는 총파업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총파업에 참여할 조합원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전삼노는 다음 주에도 5일간의 2차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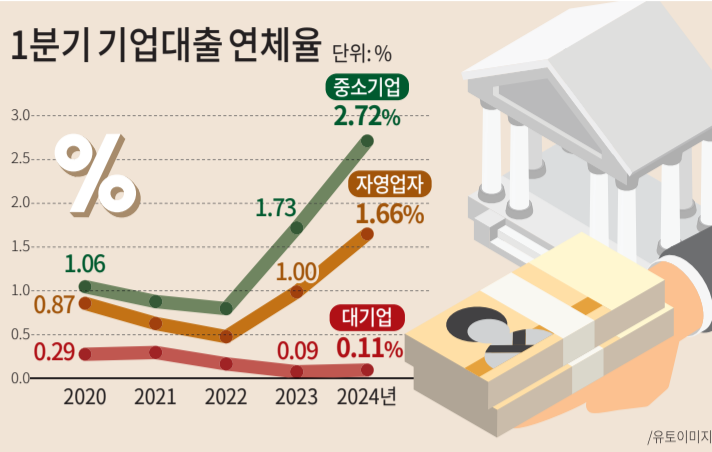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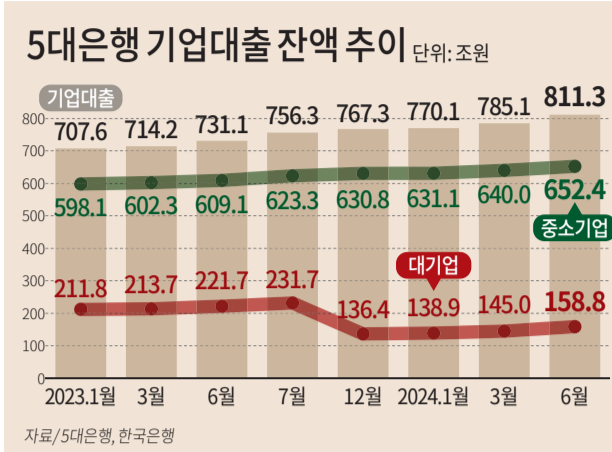
# 5대은행, 기업대출 44조... 연체율 상승에 건전성 '빨간불'

올해 상반기 기업대출 영업확대 영향  
중소·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증가  
하반기엔 우량기업 중심 대출 확대  
수익성·건전성 확보 등 리스크 관리

올 상반기(1~6월)에만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은행의 기업대출이 44조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24조원)와 비교하면 20조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문제는 증가하는 대출규모만큼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특히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811조3481억원으로 한달새 8조25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업대출 잔액(767조3139억원)과 비교하면 상반기에만 44조342억원 증가했다.

◆ 대기업 대출 상반기 16.5% 증가  
기업대출 잔액이 증가한 이유는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영업을 확대한 영향이 크다. 금융당국은 지



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자 가계부채 규제를 강화했다. 은행이 가계대출을 통한 수익이 줄어 들자 기업대출 규모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했다. 대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58조8821억원으로 한달전과 비교해 4조4155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6.5% 증가한 수준이다.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자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실우려가 상대적으로

로 낮다. 건전성 관리가 유리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652조4661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3.4%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요즘 회사채 시장이 회복돼 대기업들이 회사채를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등급이 떨어진 BBB 등급의 기업들은 은행을 찾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대부분 경기회복이 더뎠다 채무상환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량중소기업이나 기존에 거래가 이어진 곳들

을 제외하고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은행, 부실확대에 "우량기업만 대출"  
실제로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 기업대출 연체율은 대기업의 경우 2020년 1분기 0.29%에서 2021년 1분기 0.31% → 2022년 1분기 0.18% → 2023년 1분기 0.09% → 2024년 1분기 0.11%로 하락하는 추세다.  
반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2020년 1분

기 1.06% → 2021년 1분기 0.89% → 2022년 1분기 0.81% → 2023년 1분기 1.73% → 2024년 1분기 2.72%로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지만, 반도체·운수 등 일부 업종과 대기업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과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부진하고 업황이 아직 본격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연체율이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의 연체율도 급격히 오르고 있다.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20년 1분기 0.87% → 2021년 1분기 0.64% → 2022년 1분기 0.49% → 2023년 1분기 1% → 2024년 1분기 1.66%로 집계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취약기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연체율은 더 오르고 있다"며 "상반기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 보다 낮은 금리 경쟁으로 기업대출을 확대했다면, 하반기에는 수익성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ll15@metroseoul.co.kr

## 조희연 "4·5지 선다형 평가, 논서술형으로 바꿔야"

서울시교육감 10주년 기자회견  
"대입제도·대학서열화 개혁 앞장  
평가 방식의 근본적 전환 필요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33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입제도,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라며 "현재의 4지·5지 선다형 평가 방식을 논



서술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날 기자회견은 조 교육감의 취임 1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20대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뒤 2018년, 2022년 연임에 성공하며 서울교육감으로서 '최장기 임기' 기록을 세우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10여년 전 처음 교육감으로 당선되며 학생을 성적으로 줄세우는 교육을 개혁하고, 교육 불평등에 도전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교육 혁신을 위해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대입제도 개편을 꼽았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창

의력을 기르기 위해 평가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라며 "2033 대입제도"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8 대입개편안'이 교육부와 국교위에서 논의되던 당시에도 논서술형 평가 체제가 제안됐지만, 당시에는 '시기상조론'이 지배적이었다.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 서울형 미래학교, 디지털 선도학교, IB관심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에서 교실혁명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혁신은 지속돼야 하고, 수업이 바뀌려면 평가 방식의 근본

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소외된 교육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정의로운 차등' 정책도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가장 소외된 교육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지난 10년 성과를 기반으로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며 "올해는 그 핵심 정책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추진해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우리 학생들이 필요에 맞는 맞춤형 통합적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0년 간의 서울 교육 혁신에 대해 ▲학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 등 '교실혁명 프로젝트' ▲무상급식 확대, 특수학교 신설 등 교육 불평등 극복 등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ihj@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경상북도 경주시

# 2025 APEC 정상회의의 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 “자체점검 통보, 개선해야… 제연설비·안전교육도 필요”

## 행안위, ‘아리셀’ 현안질의

與 “아리셀, 화재 대비책 없는 공장 소방관서엔 잘 돼있다고 통보” 지적  
野 “정부, 5년간 아무런 조치 없어 행안부 장관, 예방·대비 책임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일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가진 가운데, ▲금속 화재를 진압할 소화기 구비 ▲제연설비 설치 범위 확대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허석근 소방청장 등 피감기관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열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시설과 공장이 관리자에 의한 자체점검을 소방관서에 통보를 하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리셀은 결론적으로 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재에 대한 대비책이 거의 없는 공장이었다”면서 “아리셀은 지난 4월15일엔 소방관서에 화재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시설이 자체점검을 통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황별로 화재 진압에 필요한 것이 맞는지 실질성이 부족하고 형식화됐다는 의구심이 든다. 개선책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허석근 소방청장에게 “배터리를 사용 많이 하고 이제 전기차에도 사용하는데, 이런 화재에 대한 소화기제조자 확보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배터리 화재에 특별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있나”라고 물었다.

허 청장은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소화기가 없다”며 “보편적 진압기술이 냉각 소화 진압 기술인데, 우리 소방에서도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배터리 화재나 금속 화재 같은 경우엔 물을 잘못 사용하면 화재가 더 커진다는 점이 홍보가 안 돼 있다”며 “국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화재에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임을 언급하면서 “소방청

자료를 분석하니 2020년에서 2024년까지 화재사고 사망원인 58.8%가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사”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연설비나 방독면이 필요한데 아리셀의 경우는 그것이 비치돼 있나”라고 허 청장에게 물었다.

허 청장은 “아리셀은 소방시설법상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배터리로부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제연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화재가 정부의 무능과 사업주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에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위성근 민주당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자 노동자들은 소화기를 들고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 이 소화기 사용이 화재와 재난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며 “노동자가 사용한 소화기는 금속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A·B·C 등급 화기였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화재는 A급, 유류 및 가스는 B급, 전기는 C급, 금속화재는 D급 소화기로 분류하는데, 아리셀은 A와 B 등급 소화기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지난 2020년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소방청 관련 조치 사항 요구에 소방청은 소방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등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개정해 화재 유형에 금속화재를 추가하고 금속화재형 소화기에 대한 형식 승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것이 됐나 안 됐나”라고 물었다.

허 청장이 진행 중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위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뭐 하

셨나”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지난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부는 예견할 수 있었던 일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사고는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위험의외주화와 위험의 이주화가 사태를 키웠다고 꼬아붙였다. 그는 “메이셀이라는 회사는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다. 화재 당일 메이셀에서 50명 정도를 아리셀에 공급했다”며 “메이셀은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불법파견 업체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를 다단계 인력 하도급 구조라고 부른다. 인력을 고용해서 수익을 얻는 회사는 그 편익을 가져가면서 고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를 위험의 외주화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18명이기 때문에 이를 또 위험의 이주화라고 한다”며 “회사(아리셀)는 이들의 안전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 총책임자라서 이를 예방하고 대비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렇게 많은 노동자가 돌아가셨으면 대책을 세워야 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라는 부분에 초점 맞춰서 사업자와 공장에도 안전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더 엄격한 처벌을 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장관께서 관심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 ★ 나를 깨우는, 경기공유학교

왜 토요일마다 오케스트라 하러 가냐고?  
나도 학교도 실력도 다르지만  
악기들이 다 같이 만들어 내는 소리,  
꽤 근사하거든

경기공유학교에서의 합주와 공연,  
그 성취의 경험으로  
나는 이미 더 나은 내가 되기로 했으니까

교수님의 힘 있는 지휘 아래  
딱-

## 집중이 켜지는 순간, 경기공유학교의 시간

\* 경기도교육청 성남 오케스트라 공유학교 신재오, 윤홍선, 허지민 학생 \*\* 경기공유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추어 운영됩니다

## 野, 순직해병 특검 표결 예고 與 “필리버스터로 부당성 설명”

與, 우원식 국회의장 항의 방문  
野, 국회법 따른 절차대로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대정부 질의 후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사 일정에 대정부 질문 후 순직해병 특검법안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고되자 이에 항의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특검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고, 이후에는 의장실 밖을 점거하며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규탄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대정부 질문 기간 중 쟁점법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다. 21대나 20대 국회나 동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검법안 관련해서 우 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요청했

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수석은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긴급 의총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종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기에, 특검법 처리가 내일 저녁으로 미뤄지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상임위원로 조를 짜서 국민의힘에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전까지 추진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로 인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입법조사처에서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고 의장실에서 그런 입장을 줘서 추진하지 않는 걸로 했다”며 “추후에 법적 검토를 더 해서 국회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박태홍 기자



# 오징어가 살아있다



오징어얼라이브 버거

매우맛  
HOT

감마맛  
GARLIC

단품 ₩ 5,500  
세트 ₩ 7,600



오징어얼라이브 비프버거

매우맛  
HOT

감마맛  
GARLIC

단품 ₩ 5,700  
세트 ₩ 7,800



Alive

오징어얼라이브  
Burger

# 1년새 기업대출 잔액 33% 늘었지만 '만년 4등' 꼬리표 떼야

(당기순익)

## '취임 1주년' 조병규 우리은행장

기업금융 평가 재건 1순위 목표  
중소 특화 대출강화 드라이브

1분기 순익 8% 줄어 은행권 4위  
연임 위해선 가시적 성과 필요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 실적개선이란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취임 후 사업을 다방면으로 확장시키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어 연임을 위해 실적 증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병규 은행장은 7월3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조 은행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기업금융 평가 재건' 달성을 1순위 목표로 설정했고, 올해는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어 중소기업 특화 채널인 '비즈(BIZ)프라임센터'를 개설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지난달 1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20개 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직원 환영 사과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BIZ프라임센터는 우리은행이 중소·중견기업 대출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산업단지마다 전략적으로 신설하고 있는 특화 채널이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금리의 투·융자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컨설팅·자산관리 등의 금융 솔루션을 윈스 톱으로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반월·사회에

서 포문을 연 이후 ▲남동·송도 ▲창원·녹산 ▲대구·경북 ▲울산 ▲호남 ▲서울 구로 ▲판교 등 8개 지역에 BIZ프라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기업금융 전문성을 갖춘 기업금융전문역(RM) 지점장과 팀장급이 배치돼 있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의 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BIZ프라임센터의 대출 심

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조 은행장 취임 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의 기업대출 잔액 132조원에서 올 5월 말에는 175조원을 기록했다. 조 은행장 취임 후 기업대출 잔액이 32.5% 증가했다.

경쟁사는 같은 기간 ▲KB은행(167조→177조원) 5.9% ▲신한은행(155조→167조원) 7.7% ▲하나은행(156조→169조원) 8.3% 성장하면서 독보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조 은행장은 '원비즈플라자' 고도화를 통해 기업금융 서비스 강화에도 나섰고, LG유플러스와 손잡고 알뜰폰(MVNO) 사업 진출에 진출하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문제는 실적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한 789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신한은행(9286억원)과 하나은행(8432억원)에 이어 은행권 3위

다. 국민은행은 3895억원을 기록했다.

4대 은행 중 홍콩 ELS 판매 잔액이 가장 적어 배상 비용도 75억원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다. 국민은행은 홍콩 ELS 배상과 관련한 충당부채로만 8620억원을 적립했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2740억원과 1799억원을 쌓았다. 2024년 시중은행 중 당기순이익 1위를 달성하겠다는 조 은행장의 포부와는 다소 거리가 먼 실적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사고도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것을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 은행장이 올해 목표로 제시한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은 거리가 멀어 보인다"며 "만년 4등 타이틀부터 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가 올해 말인 만큼 남은기간 실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전세금 못받고 이사... 임차권등기 신청 급증

올해 임차권등기 신청 3.4만건  
강제·임의경매개시등기도 최대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법원에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건수가 올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총 3만3632건으로, 전년 동기 신청 건수(2만2225건) 대비 51.3%(1만1407건) 증가했다. 2년 전인 2022년 1~6월(5968건)과 비교해서는 5.6배나 많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8956건을 기록했다. 2022년 신청 건수(1641건)와 비교하면 약 5.4배 수준이다.

이어 ▲경기도 8400건 ▲인천 5392건 ▲부산 2829건 ▲대전 1709건 ▲경북 1050건 등 순이고, 보증금 가격대가 높

은 수도권(2만2748건)의 신청 건수는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할 때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경매를 통해 매물 점유에 나서는 상황도 증가했다.

전국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지난 5월 7만6531건으로, 전달(7만4931건) 대비 2.1%(1600건) 증가했다. 지난 1월(7만2901건)보다 4.9%(3630건) 늘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는 지난

해 9월 7만10건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1월 7만건을 다시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는 지난 5월 14만2847건으로, 1개월 만에 2.6%(3712건) 증가했다. 지난 1월(12만5159건)과 비교하면 14.1%(1만7652건) 늘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지난해 9월 11만건을 넘어선 이후 계속 최고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매물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임차인은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

## 송영록 메트라이프 대표, 3연임 성공

주총서 100% 찬성으로 연임 승인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대표이사 사장(사진)이 3연임에 성공했다. 송 사장의 임기는 2027년까지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1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찬성 100%로 송 사장의 대표이사 연임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송 사장은 1968년생으로 대구 성광고,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7년 메트라이프생명에게 재무 컨트



롤러(Finance Controller) 담당 이사로 합류했다. 그 뒤 재무총괄담당 전무를 거쳐 2016년 최고재무책임자에 선임됐고 2017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9월부터 대표이사에 취임한 송 사장은 지난 2021년 한 차례 연임에 성공한데 이어 이번에도 연임에 성공해 2027년까지 자리를 지키게 됐다.

/김주형 기자 gh471@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오른쪽 첫번째),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가운데),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금융

## 황병우 은행장 "시중은행으로 나아갈 목표 설정·공유"

iM뱅크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iM뱅크는 2024년 경영목표 달성 및 지역 밀착 활동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경주에서 '2024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및 부점장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영전략회의 이후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근 식당가 및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밀착행사를 진행했다.

본 행사에서는 한순우 연세대학교 교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iM뱅크

수를 초빙해 '조직을 살리는 주인의식'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으며, 이후에는 각 영업점 및 본부별 경영전략 발표, 토론이 진행됐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이번 경영전략회의는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회의로 향후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지역, 점포, 디지털 등 분야별 세부 과제를 수립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한편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며 시중은행으로서 나아갈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공유한 자리로 뜻깊었다"며 "지역에 본점을 둔 유일한 시중은행으로 iM뱅크의 강점을 살려 전국 고객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기보와 업무협약 체결  
2년간 저리대출 보증료 전액 지원

BNK금융그룹은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 소재 탄소저감 기술을 가진 기후테크 중소기업을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 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2년간 저금리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 및 고객 보증료 전액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부산시는 2년간 이자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료, 보증료 지원과 ESG경영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탄소기초평가보증 탄소감축유형 중 외부 감축기업에 해당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은 오는 22일 부산시 사업 공고 후 8월 진행되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신청 이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 전기차시장 '캐즘' 장기화 조짐 K-배터리, 생산·투자 속도조절

배터리3사, 시장상황 적극 대처

LG엔솔 에리조나 공장 건설 중단  
SK온 켄터키 2공장 가동 연기  
삼성SDI 연내 46파이 양산 준비

국내 배터리 사들이 전기차 수요의 일시적인 정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투자 속도 조절에 본격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가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정된 투자의 속도를 조절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캐즘(수요 정체) 현상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면서 기존 투자 계획을 축소하는 등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전기차 수요는 작년 하반기부터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 정책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보여 전기차 시장은 더욱 침체되고 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저가 공세도 더해지면서 전기차 사업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자동

차 기업들도 전기차 판매 목표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배터리 기업들도 생산 목표치를 낮출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에리조나 주의 에너지 저장장치, ESS 리튬인산철 배터리 전용 생산 공장 건설을 착공한 지 두 달 만에 중단했다. 공장 재개 시점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당분간 대외 환경과 전방 시장 수요 개선에 대한 가시성이 크지 않은 것 같다"며 "투자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져보고, 능동적으로 투자 규모와 집행 속도를 조정해 다소 설비투자(CAPEX) 규모를 낮추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건설 중단도 이러한 투자 속도 조절 방침을 실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SK온과 완성차 기업 포드의 합작법인 '블루오벌SK'는 미국 켄터키 2공장의 양산 시점을 늦추기로 결정했다. 정확한 재양산 날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초 계획했던 공장 가동 시점은 2025년 연말이다. 공장 가동 시점이 미뤄지게 된 요인으로는 포드의 전기차 사업 부분에 대규모 손실이 이어진 점이 꼽힌다.

다만 삼성SDI는 다른 배터리 업체와 엇갈린 행보를 띄고 있다. 삼성SDI의 설비투자는 지난 2021년 2조1802억원에서 2022년 2조5181억원, 2023년 4조3447억원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전략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투자 집행 속도를 조정한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삼성SDI 측은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투자는 자동차 전지 중심이 이뤄질 것"이라며 "자동차 전지 산업 특성에 맞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과 고객의 수요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SDI는 46파이와 전고체 배터리를 통한 시장 대응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 46파이 파일럿 라인을 구축한 후 고객사들에게 샘플을 공급하고 있다. 본격적인 양산 준비는 올해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사가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전기차 캐즘에 맞춰 대응하려는 전략"이라며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 라인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서 본원적인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왼쪽부터)효성 조현준 회장과 팜 민 쩐 베트남 총리가 지난 1일 미래사업 협력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효성

## 조현준 효성회장, 팜 민 쩐 베트남 총리 면담

# “베트남, 탄소섬유 거점 조성”

조현상 HS효성부회장 동석  
핀테크 등 미래사업 협력 논의

효성이 신규 투자를 통해 베트남을 글로벌 탄소섬유 생산 거점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

2일 효성에 따르면 조현준 효성 회장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과 함께 방한 중인 팜 민 쩐(Pham Minh Chinh) 총리를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미래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바이오 BDO(부탄다이올), 탄소섬유 등 베트남에 투자를 진행중인 사업과 물류센터 및 데이터센터,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전력망과 핀테크 등 미래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100년 효성의 미래를 베트남에서 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존 주력제품 외에도 Bio BDO, IT, 전력 기기, 첨단소재, ATM, 데이터센터 등 미래사업 역시 베트남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베트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부회장은 “신규 투자를 통해 베트남을 향후 탄소섬유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팜 민 쩐 베트남 총리는 효성의 지속적인 베트남 투자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에게 효성의 베트남 내 비즈니스에 대한 애로 사항이 없는지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베트남은 하이테크 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성의 미래사업 투자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효성과 HS효성은 이날 포럼을 통해 베트남 바리야붕따우성과는 바이오 BDO와 탄소섬유 투자 및 지원 확대에 대한 MOU를, 베트남 5대 기업 중 하나인 소비코(Sovico) 그룹과는 데이터센터, 핀테크, 신재생에너지, 금융 등 사업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차현정 기자

## 한화오션 ‘명품 함정3형제’, 환태평양훈련 출격

〈울곡이이함·총무공이순신함·이범석함〉

“K-함정 우수성 증명할 것”

한화오션의 ‘명품 함정3형제’가 다국적 해상훈련 ‘2024 환태평양훈련(림팩)’에서 우리 해군의 주력 함정으로 활약한다.

2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8월2일까지 미국 하와이 일대에서 열리는 림팩 훈련에 대한민국 해군의 환태평양훈련전대 소속으로 참가하는 함정은 이지스함인 KDX-III ‘울곡이이함’, KDX-II ‘총무공이순신함’, 1800톤급 장보고-II 잠수함인 ‘이범석함’ 등이다. 이 3척은 모두 한화오션이 건조·인도했다.

이 함정들은 이번 림팩 훈련에서 함대공미사일 SM-2 발사 등과 같은 대



총무공이순신함

공전 외에 대함전, 대잠전, 자유공방전 등 다양한 훈련을 진행한다. 올해 림팩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29개국의 수상함 40척, 잠수함 3척, 항공기 150여 대 및 병력 2만5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세계 각국 해군들의 ‘친선의 장’인 동시에 실력을 겨루는 ‘격전의 장’인 림팩에서 K-함정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증명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림팩은 태평양 연안 국가 간의 해상 교통로 보호 및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능력, 연합작전 상호 운용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 해군 주관으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이다. 1971년부터 시작돼 2년마다 진행되며, 올해로 29번째 훈련이다. 한국은 1988년 ‘옵서버’ 자격으로 훈련을 참관했고, 1990년 첫 훈련 참가 이후 올해로 18번째 참가다.

한화오션은 이번 림팩에 참가한 ‘함정 3형제’가 보여줄 뛰어난 역량이 해외 함정 수출은 물론 미국 함정MRO(유지·보수·정비) 사업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LS전선, 美 서부 지역에 해저케이블 공급

LS파워그리드 캘리포니아사 계약

LS전선이 미국 서부 지역에 처음으로 해저케이블을 공급한다.

LS전선이 미국 송전망 운영사 LS파워그리드 캘리포니아(LS Power Grid California)사와 1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계약을 통해 LS전선은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블은 캘리포니아주(이하 CA

주) 북부 세크라멘토강에 설치되어 오리건주 등 서북부에서 CA주로 전력을 송전하는 데 사용된다. 서부지역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CA주는 2035년까지 약 61억달러를 투자하여 26개의 신규 송전망과 85GW(기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LS전선 관계자는 “CA주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송전망 구축 계획에 맞춰 고객사와 협력을 강화해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해저케이블 시장은 노후 케이블의 교체, 신재생에너지 개발, AI와 전기차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LS전선은 최근 자회사 LS그린링크, LS에코에너지를 통해 미국과 영국, 베트남에 생산 현지화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해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LS Power는 1990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에너지 인프라 개발 및 투자 회사로, 북미 전역에서 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제공  
YouTube

/차현정 기자

## LG화학,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신학철 부회장 “지속가능 생태계 선도”

LG화학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선도해 나간다.

LG화학은 파트너십을 통한 넷제로 실현 노력을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파트너십을 통해 넷제로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LG화학의 지속가능 전략과 실행들을 소개했다.

LG화학은 2026년까지 사업에서 직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탄소뿐만 아니라 협력사를 포함한 사업 전체의 밸류체인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까지 산출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LG화학은 글로벌 선도 과학기업으로 더욱 개방적이고 혁신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다양한 파트너사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 기아 “인천공항에서 EV9 탑승해보세요”

체험형 전시공간 운영

기아가 소비자들과 소통 확대를 위해 인천공항에 체험형 전시공간을 운영한다.

기아는 전 세계로 향하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H구역 인근에 위치한 전시부스를 체험형 콘텐츠로 새 단장하고 운영에 나섰다

2일 밝혔다.



기아가 인천공항에 설치한 체험형 전시부스.

기반 플래그십 SUV EV9이 전시돼 있으며, 향후 신차 출시에 맞춰 전시 차량을 지속 교체한다.

/양성운 기자

# LGU+, AI 중심 B2B 성장 전략... “2028년 매출 2조 목표”

중장기 성장 전략 ‘올인 AI’ 공개  
익시젠 활용해 AI 서버 효율 극대화  
AI 데이터센터·컨택센터 등 고도화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선도해 2028년까지 이 분야 연 매출을 2조 원까지 늘린다.

LG유플러스는 2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LG유플러스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중심의 B2B 중장기 성장 전략인 ‘올인 AI(All in AI)’를 공개했다. B2B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인프라 ▲플랫폼 ▲데이터 등 기술 혁신에 집중해 ‘AI 응용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게 전략 핵심이다.

### ◆ ‘인프라·플랫폼·데이터’ 기술 혁신으로 ‘AI 응용 서비스’ 고도화

인프라 부문에서 데이터센터, 온디바이스(기기 내장형) AI 등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인프라 핵심인 데이터센터 사업은 sLLM(소형언어모델) 익시젠(iki-GEN)을 활용해 AI 서버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다. 추후 개발 예정인 AI 데이터센터 포함해 총 3개의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용할 예정이다. 익시



2일 오전 LG유플러스 B2B 중장기 전략 ‘ALL in AI’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권용현 기업부문장.

LG유플러스

젠은 LG유플러스 통신·플랫폼 데이터를 학습시킨 경량 LLM으로, LG AI 연구원이 개발한 초거대 AI ‘익사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온디바이스 AI 사업에서는 국내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딥엑스와 함께 익시젠을 접목한 AI 반도체를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

온디바이스 AI 기술은 통신장비·AICC(AI 컨택센터)·SOHO(소상공인)·로봇·모빌리티 등 LG유플러스 자체

사업뿐 아니라 LG그룹사가 보유한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용된다.

권용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전무)은 AI 반도체에 대해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성은 유지한 채 기존 AI 반도체 대비 상용화 시간을 단축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과 데이터 부문에서도 익시젠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 플랫폼 사업에서 익시젠을 활용해 통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sLLM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 ◆ 연내 금융·교육·보안 등에 특화된 ‘익시젠’ 개발

LG유플러스는 연내 금융·교육·보안 등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sLLM 익시젠을 개발한다. 기업 고객이 sLLM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 수를 88억 개, 250억 개 등으로 세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데이터 사업에서는 고객사업종별로 특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서

확보한 고객 데이터를 AI가 다시 학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고객사가 스스로 AI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개발 솔루션’ 사업에도 진출한다. 이를 위해 ▲AI 서비스를 자체 제작·관리하는 익시 솔루션 ▲데이터 품질을 최적화해 관리하는 U+데이터 레이크 ▲AI 개발 학습을 자동화하는 MLOps(머신러닝작업) 바이올렛 등 AX 플랫폼 3종도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생성형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와 AI 기반 자율주행 스타트업 라이드 플러스, 딥엑스와 아마존웹서비스(AWS), 카이스트 등과 협력하며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권 전무는 “All in AI 전략은 LG유플러스의 전사적 역량을 AI에 결집하고, 모든 서비스에 AI를 적용해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올해 AI 중심의 B2B 전략으로 고객의 성장을 이끄는 AI 사업자로 발돋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수습기자 hyem@metroseoul.co.kr

## LG엔솔, 전기차용 LFP 배터리 대규모 수주

르노와 내년부터 5년간 39GWh 계약  
파우치 배터리 최초로 셀투팩 적용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첫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르노(Renault)의 전기차 부문 ‘암페어(Ampere)’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르노 본사에서 전기차용 파우치 LFP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차량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곳은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이다.

공급기간은 2025년 말부터 2030년까지 총 5년이며 전체 공급 규모는 약 39GWh(기가와트시)다. 이는 순수 전기차 약 59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의 르노형 LFP 배터리는 파우치 배터리 최초로 셀투팩(Cell To Pack, CTP) 공정 솔루션을 적용해 제품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LFP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철과 인산을 사용하고, 안정적



지난 1일 프랑스 파리 르노 본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르노가 전기차용 LFP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LG에너지솔루션

인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기를 앞두고 다양한 가격대의 전기차 개발 및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계약은 LG에너지솔루션의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LFP배터리 수주는 글로벌 자동차 3대 시장 중 하나인 유럽에서 중국 기업의 주력 제품군을 뚫었다는 데 의미가 깊다. 전기차용 LFP 시장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텃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유튜브 영상 제공



## SKT, 위성 탑재 양자암호 기술개발 박차

시스템 개발 국책 과제 수주

SK텔레콤은 향후 무선과 위성통신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양자암호통신 시스템 개발 국책 과제를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이 맡게 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

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위성 탑재형(向)장거리 무선 QKD(양자암호키분배) 시스템 개발’로, 지난 4월 과제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컨소시엄에는 SK텔레콤과 양자 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술력을 보유 중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천문연구원(KASI),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경희대학교가 참여한다.

5년간 진행되는 이번 국책 과제는 고성능 QKD 구현 기술, 광집적화 기술, 적응 광학 기술, 무선 레이저 통신 기술 등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을 융합해 지상은 물론, 위성 탑재까지 가능한 30km급 장거리 무선 QKD 시스템의 개발이 최종 목표다.

이 밖에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은 초고속 양자난수생성기(QRNG), 고성능 소형 단일광자검출기(SPAD), 신규 QKD 프로토콜 구현 등 QKD와 관련된 다양한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

/김서현 기자 seoh@

## KT, 유·무선 고객 위한 장기혜택 개편

OTT 할인·데이터 추가 등 선배

KT는 다음 달 1일부터 장기고객 혜택을 새롭게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혜택의 폭을 보다 넓히기 위해 무선서비스와 인터넷, TV 상품 등 유선서비스의 이용 기간을 모두 합쳐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이번 개편을 통해 무선 고객 위주로 제공하던 장기혜택을 인터넷과 TV를 이용하는 유선 고객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데이터·통화 추가 등

기존 통신 혜택은 물론 OTT 할인과 유·무선 부가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강화된 혜택들을 선보인다.

이번 새로운 장기혜택은 무선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TV 이용 기간도 각각 합산해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 기간 합산 5년부터 장기혜택 쿠폰을 매년 6장을 제공하고, 10년은 8장, 20년은 10장씩 제공해 기존의 최대 6장보다 혜택을 크게 확대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하이브IM ‘캐치라이브’ 업데이트

하이브IM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인용 모드 게임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하이브의 게임 부문 자회사인 하이브IM은 모바일 리듬게임 ‘리듬하이브’에서 신규 모드 ‘캐치라이브’를 업데이트했다고 2일 밝혔다.

하이브IM에 따르면 ‘캐치라이브’는 실시간 매칭을 통해 최대 8인이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다인용 모드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기본 라이브와 함께 친구들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라이브 기능도 도입됐다.

아울러 게임을 통해 얻은 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레슨 시스템도 추가됐다. 녹음, 안무, 촬영, 무대 등 다양한 항목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메타빌드 ‘연계통합미들웨어’ 디지털서비스 등록

메타빌드가연계통합미들웨어(MESIM gSaaS)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서비스이용지원시스템에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SaaS)로 등록되었다고 1일 밝혔다.

연계SW로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서비스 SaaS로 인정받은 사례로, 지난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CSAP SaaS 표준등급’을 획득했다.

설치형 연계통합미들웨어(MESIM ESB) 제품을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함으로써 인프라나 시스템의 유형에 제약받지 않고, 구독형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바꿨다.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 우리투자증권, '핵심인재 영입'으로 MTS 고도화 전략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포스증권 합병에도 추가 투자 필요  
출범 10년 내 업계 톱10 IB 목표  
기존 증권사, 인재 유출 단속 나서

8월 우리투자증권으로 '부활'을 예고한 우리종합금융이 핵심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투자은행(IB) 부문 인력 충원은 물론이고 정보기술(IT) 전문 인력을 모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범대우증권 출신들이 우리금융으로 다수 옮겨가며 빠르게 기반을 잡는 모습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 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7월 중에 감독당국의 합병 인가 승인이 난다면 포스증권의 주주총회와 우리금융의 이사회를 거쳐 8월 중에는 통합된 우리금융



우리금융그룹 본점

/우리금융그룹

계열 증권사 출범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를 대비해 우리금융은 핵심 전문 인력 충원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증권이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이름을 알리고 기존 직원을 우리금융이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은 리테일 기반 소형 증권사로 여겨지는 만큼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태다.

'출범 10년 내 업계 톱10에 드는 초대형IB'를 목표로 하는 우리금융은 인재 영입이 한창이다. 지난달에는 박현주 전무를 캐피탈마켓(CM)본부장으로 선임했고 앞선 3월에는 대우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표를 역임한 이영창 사외이사, 양완규 IB총괄 겸 기업금융1본부 총괄이사, 김범규 디지털본부장, 홍순만 인사본부장, 김진수 경영기획본부장을 영입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임원급 인력들이 과거 대우증권 출신이라는 점이다. 남

기천 우리증권 사장부터, 양완규 부사장, 이영창 사외이사, 박현주 CM본부장 등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포스증권이라는 증권사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중 증권사들에게 밀리는 건 사실"이라며 "우리"라는 브랜드를 필두로 회사를 안정적으로 키우려면 과거 증권사 경험이 있는 임원과 직원을 영입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금융은 MTS 고도화 전략으로 중개시장 내 입지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증권사에서 IT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과 MTS 기획이나 개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인력 채용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우리금융은 포스증권의 '펀드수퍼마켓' 애플리케이션과 우리금융 앱과 주식거래시스템, 원더링(투자정보 플랫폼)이 탑재된 MTS 구축을 준비하

고 있다. 오는 11월 출시 예정인 우리금융의 슈퍼앱 '뉴원'과 연계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복안에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아직 공채 형식의 채용을 내지는 않았다"면서도 "당국의 인가가 난 뒤에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증권사들은 인재들이 우리금융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고 내부 단속을 하는 분위기도 전해진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우증권 출신 중심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IT인력은 다른 업체를 통해서도 많이 구할 수 있지만 증권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선호하기에 기존 증권사에서도 인재 유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밸류업 수혜 은행株, 하반기도 상승 기대

주가 급등에도 PBR 낮은 수준  
주주환원책 나올 가능성 높아  
전문가 최선호주 'KB금융지주'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가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은행주가 저평가된 데다 주주환원이 기대되고 있어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은행지수는 상반기에 20%가량 증가했다. 개별종목으로 살펴보면 KB금융이 45%로 가장 크게 올랐으며 하나금융지주가 40%로 뒤를 이었다. 신한지주(20%), 기업은행(18%), 우리금융지주(13%) 등도 두 자릿수의 상승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5%가량 증가한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실적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이자 저평가자산비율

(PBR) 대표주로 꼽힌 점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PBR이 1배 미만이면 주가 수준이 기업의 자산 가치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올해 은행주들은 주가가 급등했는데도 여전히 PBR은 낮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도 은행주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내 금융지주들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여파에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데다 하반기에도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전망한 4대 금융지주의 올 2분기 순이익은 4조6418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2분기(4조3765억원)보다 10% 가까이 증가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융지주들의 2분기 실적은 우려와 달리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를 웃돌 가능

성이 커졌다"며 "정부의 밸류업의지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시장 예상 수준의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KB금융지주를 최선호주로 꼽았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B금융은 지난 2월에 이어 곧 자사주 3200억원 이상 매입·소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통주자본비율(CET1비율)이 2분기에도 13%를 충분히 웃돌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사주 매입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3200억원 매입 및 소각 기준 올해 총주주환율은 38%로, 매입 규모에 따라 40%도 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주 중 가장 PBR이 높지만, 이는 자본비율이나 이익 안정성, 주주환원 정책의 우위가 반영된 것"이라며 "우위 요인이 약화하기 전까지는 밸류에이션프리미엄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 신한투자증권 사옥 이사 기념 특판 DLB 출시

신한투자증권은 사옥 이사(ISA)기념 세전 연 5.5% 특판 파생결합사채(DLB)를 7월 1일~5일, 8월 5일~9일, 9월 2일~6일 회차별 100억원씩 총 300억원 규모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판DLB는 국고채 3개월 금리(KTB3M)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최대 세전 연 5.51% ~ 최소 세전 연 5.5%를 지급하는 3개월 만기 원금지급형(Digital) 상품이다. 만기 평가가격이 10% 이상인 경우 세전 연 5.51% 수익을 지급하고, 만기 평가가격이 10% 미만인 경우 세전 연 5.5% 수익을 지급한다. 단,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 삼성증권, 우수 고객 대상 자산관리 세미나

'AI 시대 투자전략' 주제

삼성증권은 오는 9일 인공지능(AI) 시대 투자전략을 주제로 '2024 하반기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개최 예정인 이번 세미나는 삼성증권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자의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강연은 최재봉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AI사피엔스 시대 생존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의 개화에 있어 미래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개할 예정이다. 최근 발간한 'AI사피엔스'의 저자이기도 한 최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대연합 디지털소사

이어티 최고위원을 역임한 우리나라 AI 분야의 대표 전문가이다.

뒤를 이어 이종욱 삼성증권 비상장솔루션팀장과 정명지 채널솔루션전략팀장이 나서 'AI Tech 투자전략'을 주제로 고객들에게 투자인사이트를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김예나 삼성증권 Tax센터 센터장이 '자산가의 절세 트렌드 비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세미나장 옆 부스에서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들의 일대일 세무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대격변의 AI 시대를 맞이해 이러한 트렌드에서 필요한 생존전략과 투자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 엔비디아 고점론에도 AI반도체 투심 '여전'

### 해외주식 Click

엔비디아 6485만달러 사들여  
주가 급등 이후 8.31% 떨어지  
반도체 관련 종목 주가 조정

엔비디아의 주가가 휘청이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학개미들은 투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매수 상위 종목에 AI반도체주를 포진시키는 등 '제2의 테슬라'가 등장한 모습이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6월 25일~7월 1일)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를 6485만달러(900억원) 사들였다. 고공행진하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주춤함에도 투자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주에는 엔비디아의 수익률을 1.5배 추종하는 '그레닛쉐어지 1.5배 롱 엔비디아데일리' 상장지수펀드(ETF)도 1억8251만달러(2533억원) 순매수하면서 2번째로 많이 사들였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들어 약 140% 가량 상승하면서 광풍을 몰고 왔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뉴욕 증시에서 전장보다 3.51% 급등한 135.58달러에 마감하며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이후 현재까지 8.31% 떨어지면서 숨고르기에 들

어갔다.

이경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FICC 리서치부 부장은 "엔비디아가 최근 하락세를 보였는데, 앞서 3월에도 급락 후 다시 반등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인다"면서도 "엔비디아 실적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어 AI반도체주가 지극히 조심할지는 두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은 AI반도체에 대한 강한 투심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볼 3배' ETF로 3억2850만달러(4560억원)를 사들였다. 순매수 상위 3위에 해당하는 마이크로(1억5114만달러)도 AI반도체주다. 최근 엔비디아 고점론 등 AI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고평가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은 이 시기를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메타를 비롯한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 보유 회사)의 투자가 약해지거나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훼손되기 전까지 엔비디아의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

## 한투증권, 해외선물·옵션 수수료 할인 행사

온라인 전용 거래 '뱅크스' 고객 대상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전용 거래서비스 '뱅크스'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선물·옵션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해외 선물·옵션 신규 고객 또는 3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 고객에게 이벤트 신청일부 6개월 간 온라인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적용

시 1계약당 수수료는 마이크로 해외선물 0.5달러, 일반·미니 해외선물 1.99달러, 해외옵션 2.5달러 등이다.

이벤트 기간 내 1계약 이상 체결 시 수수료 할인 혜택이 6개월 자동 연장된다. 연장 혜택은 최대 3회, 2년까지 적용된다. 또 이벤트를 신청하고 1계약 이상 거래하면 스타벅스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1000계약 이상 거래한 고객 중 3명을 추첨하여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허정운 기자

# 편딩제품 2차례 지연에 대응 미흡... 컨셔널 '소비자 기만'

〈원즈웨이브〉

세 차례 편딩 통해 총 2억 어치 팔아 발송 약속일 지나 '지연' 공지하고 두 차례 더 약속 어긴 후 제품 발송 "중 공장서 하자, 납기일 못 맞춰" 와디즈 "보상금 없고 요청엔 환불" 입점사 관리부실 문제 '도마위'



컨셔널이 와디즈를 통해 판매한 47리터(L)급 캠핑용 알루미늄 박스 '원즈웨이브 TAC, Aluminum Box'.

누적 회원수만 600만명이 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세차례 편딩을 통해 20만원에 가까운 캠핑용 알루미늄 박스를 2억원 어치 넘게 판매한 '컨셔널'이 소비자들을 기만해 빈축을 사고 있다.

배송 일정이 한참 지나야 '지연 공지'를 하는가하면 결국 또다시 약속한 배송날짜까지 지키지 못하는 등 신뢰가 추락, 고객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14%에 가까운 수수료만 챙기고 입점회사 관리를 부실하게 한 와디즈의 행태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2일 와디즈에 따르면 유통사 컨셔널(박수형·오수현 대표)은 47리터(L)급 캠핑용 알루미늄 박스 '원즈웨이브 TAC, Aluminum Box'를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 까지 크라우드 펀딩으로 판매했다.

색깔별 가격은 카키·블랙 제품이 19

만9000원, 실버가 17만9000원이다. 배송비 5000원을 포함하면 20만원(카키·블랙)이 넘는 고가다.

이들 제품은 3차 앵콜을 통해 266명이 편딩에 참여, 판매금액만 총 4753만 8000원을 달성했다. 1인당 약 17만8700원을 쓴 꼴이다.

유통을 맡은 컨셔널측은 편딩을 하면서 제품 발송 시작일을 6월 11부터 20일까지라고 고객들에게 사전 공지했다.

문제는 중국산 제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컨셔널은 발송일이 한참 지난 6월 17일 저녁 늦게서야 '지연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렸다.

회사측은 공지를 통해 "단순한 알루미늄박스가 아니라 타공판, 다리, 확장판 등 여러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기에, 한 부품만 납품이 지연되어도 제품 전체가 지연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ㅠ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28일 혹은 7월 1일 발송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제품 수량에 맞춰 캠핑 날짜 등을 잡은 고객들은 화가 났다.

서포터인 최모씨는 "편딩을 세차례나 성공했다고 배가 많이 부르신거봐요. 발송일자를 반이나 까먹고는 선적에 문제가 있다? 중국산을 한 달 넘게 기다리면서 아무소식도 없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

가... 좀 너무 하네요"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컨셔널은 다시 한번 약속한 배송 날짜까지 지키지 않았다.

지난달 28일이나 이달 1일 발송한다고 공지했던 회사는 약속한 마지막 날인 1일 저녁 늦게서야 다시 "3차 편딩 발송 일정 또 지연되었습니다. 내일(2일) 컨테이너 들어오는대로 바로 발송하겠습니다. 향후 공장 관리 더욱 철저히(오타)하겠습니다"라고 추가 공지했다.

서포터들은 "진짜 죄송하나요..", "뭐하는 거지...??? 참..", "대단하십니다."라는 반응 등을 늘어났다.

발송 약속(6월 11~20일)→지연 공지(6월 17일 저녁)→발송 약속(6월 28일 또는 7월 1일)→지연 공지(1일 저녁)→발송 약속(2일) 등을 반복하며 수차례 고객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이다.

컨셔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중국 닝보에 공장이 있는데 제조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했다. 그래서 납기를 맞출 수 없었고 약속했던 배송 날짜도 지킬 수 없었다"면서 "검수를 끝내고 한국에 제품이 도착해 오늘(2일) 고객들에게 발송해 하루, 이를 정도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회사에서 책임지고 보상해드릴 예정이고 취소를 원하는 고객에게도 전액 환불할

계획이다. 다만 발송 지연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관악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컨셔널은 자동차부품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전자상거래, 여행/취미, 모빌리티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와디즈 관계자는 "이번 이슈는 배송 지연에 관한 것으로 지연보상금은 없다. 그러나 환불을 요청하시는 고객에게는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환불을 해드릴 계획"이라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위해 자체적으로 '신뢰안전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불편을 제대로 해결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와디즈는 올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가 맡았다. 매출(영업수익)은 2022년 342억원에서 지난해 397억원으로 16.1%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338억원에서 -173억원으로 48.8% 줄었다.

현재 와디즈는 창업자인 신혜성 대표가 39.2%,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25.9%, 기타가 34.9%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와디즈의 월간 방문자수는 약 1000만명에 달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기부, 글로벌 스타트업에 무료 법률자문

김앤장 등 로펌 4곳과 업무협약  
일본·베트남 등 9개국 지원예정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대형 로펌 4곳과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

중기부는 2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법무법인(유) 광장(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세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시에 스타트업 법률자문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게 현지기업과의 계약 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로펌별로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도 수여했다.

법률자문단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꾸렸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제 스타트업은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법률회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면서 "협약을 디딤돌 삼아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달부터 국내 법률과 관련해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으로 만들어 창업지원사업 누리집에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엔클라우드 스페이스에서 열린 'AX브릿지위원회' 출범 포럼에서 (왼쪽 5번째부터)벤처기업협회 성장업 회장, AX브릿지위원회 이주완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협회

## 벤처기업협회, AI분야 기업 성장 돕는다

'2024 AX브릿지위원회' 본격 출범  
벤처 기업의 AI전환 촉진 활동 계획

벤처기업협회가 회원사의 인공지능(AI) 전환을 돕기 위해 '2024 AX브릿지위원회'를 본격 출범했다.

벤처협회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엔클라우드 스페이스에서 'AX브릿지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AX(AI transformation)'는 DX(Digital transformation)를 넘어 AI를 중심으로 기업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최근 세계는 생성형 AI, 초거대 AI, 고객 맞춤형 클라우드 등 IT 기반 자체의 지각 변동을 불러오고 있으며, AI가 기업 혁신을 이끄는 핵심 전략이 됐다.

벤처협회 AI브릿지위원회는 앞으로 ▲AI 분야 벤처 기업들의 성장 지원 ▲벤처 기업의 AI전환 촉진 ▲협회의 장점인 정책 제안 기능을 활용한 AI산업 발전 지원을 목표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위원장은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대표가 맡고 포티투마루 김동환 대표, 고피자 임재원 대표, 휘튼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 모비젠 김태수 대표, 에이버츄얼 김태준 대표, 세븐미마켓 주명규 대표, 스피어테크놀로지 강군화 대표, 엑스와이지 황성재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성장업 벤처협회장은 "협회는 벤처기업의 AX환경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니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이주완 위원장을 중심으로 상호간의 결속과 단합으로 AX브릿지위원회와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X브릿지위원회는 아울러 ▲다양한 테크 기업과 벤처기업 간의 연결을 통한 비용 절감 지원 ▲기업 내의 업종 전문가와 AI기술전문인력 간의 가교로 인력 부분 지원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통한 정책지원을 벤처기업들의 AX 대응전략으로 제시했다. /김승호 기자

## 휴롬, 네이버 랭킹쇼핑서 파격할인

음식물처리기·착즙기 등 판매

휴롬이 오는 7일까지 진행되는 '네이버 랭킹쇼핑'에 참여해 음식물처리기, 착즙기 등 자사의 대표 제품들을 파격적으로 판매한다.

2일 휴롬에 따르면 네이버 랭킹쇼핑은 올해 네이버에서 첫 선을 보이는 대형 기획전으로, 쇼핑 카테고리별 가장

인기가 많았던 브랜드 3곳이 참여해 풍성한 혜택을 선보이는 행사다.

주방가전 카테고리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휴롬은 이 같은 성원에 힘입어 이번 기획전을 통해 신제품 음식물처리기 2세대 구매 시 최대 14만5000원 할인 혜택과 함께 5만8000원 상당의 필터 2개 세트를 구매자 전체에게 증정한다. /김승호 기자

이와 함께 착즙기 등 전 제품을 최대 41%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H410 착즙기 구매 고객에게는 3.2kg 멜론을 전원 제공한다.

여기에 최대 10만원까지 할인 가능한 카드사 7% 할인혜택 및 휴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알뜰방기 설정 시 5000원 중복할인쿠폰도 증정한다. 음식물처리기 2세대, H410 구매 확정 후 포토리뷰 작성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 추가 적립 등 풍성한 혜택도 준다. /김승호 기자

# 스마트팜 설치기간 최대 16년... 농가 근로자숙소 활용 확대

### 농식품부, 농어업인주택 규제 완화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활용 농촌 빈집 방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 등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된다. 농촌진흥구역내 농어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촌 빈집의 정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한 '농지법시행령'이 오는 3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농지법시행령은 스마트작물배재사(스마트팜) 확산,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지원 등을 위해 개선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의 스마트팜 등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최장 16년까지 허용한다. 스마트팜은 농작물 생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4월 서울의 한 수직농장에서 재배된 채소 등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곳이다.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립돼,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스마트팜 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

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했다. 표준화된 시설에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내·외국인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도 담겼다.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수가 늘고 있으나, 농어촌은 산업단지외 달리 주거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읍·면 소재지 등에 비수

한 주거시설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어 불편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이를 개선코자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지 면적도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업인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도 3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민간의 자발적 농촌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 이를 활용한 빈집재생프로젝트 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제도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특정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시장·군

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마을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구역의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또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을 고려해 철거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00만 원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다양하게 농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 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면세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81% 감축

### 환경부, 면세점 일회용품 사용량 조사 올해 1~5월 기간 1인당 사용량 0.83매 총 사용량 일상회복 이후 해마다 증가

지난해 면세점 내 비닐쇼핑백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국내 12개 면세점의 2023년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코로나 19 발생 직전인 2019년도 수치와 비교했다. 이들은 작년 9월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지난해 발생량이 2019년에 비해 80%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비닐쇼핑백 사용량은 1676만 개로, 2019년 8920만 개에 비해 81% 줄었다. 해외여행이 급감한 코로나19 기간(2020~2022년) 중 사용량 자체가 크게 감소했던 점을 감안해 2019년 수치와 비교한 것이다.

면세점 이용객 1인당 사용량의 경우, 2019년 2.34매에서 2020년 2.6매로 늘어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기간에는 1인당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5일 오후 서울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서 포장 개선 방식과 포장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뉴스시스

사용량이 0.83매까지 줄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발적 협약을 맺기 전까지 면세점 업계는 비닐쇼핑백을 기본으로 사용한 데 더해, 면세품 운송 과정에서 파손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비닐재질 완충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과도하게 많았다"고 설명했다.

협약 이후 비닐완충재 사용량도 대폭 줄어들었다. 2019년 기준 7779만 개가 사용된 반면, 2023년에 705만 개로 감소

했다. 1인당 사용량 역시 2019년 2.04매에서 올해 1~5월 기간에 0.26매로 크게 감소했다. 면세점 업계는 비닐완충재를 줄이기 위해 파손 위험이 낮은 제품에는 비닐완충재를 쓰지 않는 등 최대한 사용을 줄였다. 아울러 다회용 완충재 방 또는 종이완충재를 사용하거나 견고한 다회용 상자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세점 업계는 낙하방지용 물류 포장재도 회수해 재활용하고 있다. 또 ▲업무 차량의 전기차 전환 ▲사무실 내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전자영수증 발급 등 친환경 경영을 펼치고 있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환경부는 면세점 업계의 일회용품 사용량 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으로 야구장,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과 체결한 협약 이후의 일회용품 사용량을 분석할 계획이다. 향후 일회용품 줄이기에 의지가 있는 다양한 업종과 협업해, 폐기물 원천 감량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수업 듣고 '직무능력은행'에 직무정보 저축"

###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신청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학교육으로 습득한 직무능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기 위한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신청'을 7월 4일 ~ 8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의 자격, 훈련, 교육, 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해 통합 관리하고, 필요할 때 '직무능력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과 인사배치, 자기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9월 개시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대학 등은

2025년 운영 예정인 교과를 대상으로 직무능력은행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9월까지 신청서 점검과 평가를 진행하고 10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전문대학 등의 교과를 심사하고 인정한다. 해당 교과를 이수한 학생은 교과 직무정보가 직무능력은행에 저축돼 이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교과인정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24개 대학, 264개 교과가 직무능력은행에 저축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 정부, 중소기업 일·육아 맞춤형 지원 나선다

### 고용부, 일·육아 동행 플래너 출범

정부가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일·육아 맞춤형 지원 서비스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을 갖고 중소기업에 특화된 현장 지원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우선 일·육아 동행 플래너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이력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제도를 모르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 해당 기업을 방문,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파악한다. 플래너들은 기업지원 업무 경험이 많은 직원 위주로 선발했고, 효과적인 기업 분석·진단 및 일·육아 지원제도 컨설팅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진단 결과와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데, 예를 들어 대체 인력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인재채용뱅크와 연계해 채용을 알선하고 지원금 신청도 안내하는 식이다. 또 유연근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일터혁신 컨설팅',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과 연계해 최적의 도입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 무협 "美 중남부 지역 거점 마련"

### 텍사스주 델러스 사무소 개소

미국 중남부 물류·금융·산업 중심지인 델러스에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거점이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주 델러스에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베스 반 다인 연방 하원의원, 제인 넬슨 텍사스주 국무장관, 정영호 주휴스턴 총영사 등 양국 정부와 유관기관·기업 관계자 50명이 참석했다.

무협 델러스 사무소는 텍사스·조지아·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중남부 및 서부지역을 관할하며 현지 진출 정보 제공, 양국 기업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윤진식 회장은 개소식에서 "텍사스주는 미국 내에서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르고 역동적인 주 중 하나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적고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없어 한국 기업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델러스 사무소는 한국 기업의 텍사스

주 진출 및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텍사스주의 5대 교역 파트너로서 고용·투자·수출 등 다방면에서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텍사스주의 5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으로 무역 규모는 약 320억 달러에 달한다. 2024년 4월 현재 텍사스주에는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70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놀랄 만 큼 다 양 한 콘 텐 츠  
볼 수 록 빠 저 드 는 초 고 화 질 지  
몰 입 감 높 이 는 사 운 드 까 지

**똑같은 품질!**

우리 집 통신비 아껴주는

**알뜰한 가격!**

화질·음질UP | 합리적 가격 | 다양한OTT



TV를 즐기는 새로운 기준!

**Hello tv Pro**

헬로tv Pro 런칭기념

**기본료 할인 EVENT 진행중!**

※ 24년 7월 31일까지 가입 완료한 고객에게 해당됩니다.

1:1 실시간 상담톡  
바로가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Ch**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 경남도, 자금난 겪는 中企에 3300억 규모 육성자금 지원

경영안정·시설설비·특별자금  
평가지표 따른 정량평가 진행  
기업 금융 부담 개선 위한 노력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경상남도가 고금리 상황 속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경영안정자금 1250억원, 시설설비자금 1750억원, 특별자금 300억원 등 총 3300억원 규모의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이차 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1.5%~2.0%,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은 1.0%~2.0%이다.

경영안정자금 1250억원은 일반 신규대출자금 500억원과 대환대출자금 750억원이며, 시설설비자금 1750억원은 건축·임차자금 880억원과 매입자금 870억원으로 구성된다.

특별자금은 지난 1월 18일부터 조

선, 항공우주, 원자력 등 주력 산업과 비제조 산업 지원 등 10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중동 사태 등 대내외 정세에 따른 수출 기업 애로 해소와 도내 방위산업 업황을 위해 이번 3분기에 수출기업 지원 특별자금 100억원과 방위산업 육성 특별자금 2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평가 절차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위해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심사위원회의 2차 검증을 통해 고득점순으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난 2분기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평가 방식을 도입했으며, 3분기부터 시설설비자금에도 확대 적용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경영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기업 수요를 꾸준히 파악해 자금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금융 부담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1000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844개사, 5758억원을 지원해 고금리와 내수 부진 상황 속에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신안군

#### 박향란 첫 여성 신의면장 발령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에서 최초 여성면장이 탄생했다.

신안군 여성 면장 1호로 기록될 박향란 신의면장은 신의면 출신으로 1992년 9급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다문화가족센터장과 홍보팀장, 신의면부면장에 이어 이번에 면장으로 발령받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그간 업무 과정에 겪어본 박향란 신의면장에 대해 여성의 섬세함과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했던 직원으로 평가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 광주시

#### 당직근무제 38년 만에 폐지

광주시가 직원들의 당직근무제를 38년 만에 폐지한다.

기존에는 5급 이하 직원들이 부서 업무를 수행한 뒤 3인 1조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당직업무를 수행했다.

당직근무는 재난안전상황실로 통합 운영되며 전담인력이 대신한다. 광주시는 재난 안전실 인력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늘려 3인 1조 형태로 24시간 근무 뒤 이를 휴식 방식으로 당직민원과 재난대응 업무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당직민원 처리를 위해 KT와 협업해 인공지능(AI) 당직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 백운산자연휴양림, 전남 추천관광지 선정

전문 산림치유지도사가 진행하는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기  
목재문화체험장, 숙박시설 등 갖춰



광양시가 백운산자연휴양림이 명상·치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쉼이 있는 여행' 테마 전라남도 7월의 추천관광지에 선정됐다.

광양시가 백운산자연휴양림이 명상·치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쉼이 있는 여행' 테마 전라남도 7월의 추천관광지에 선정됐다.

해발 1222m 백운산 자락에 있는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치유의숲, 목재문화체험장, 식물생태숲, 황톳길 등을 갖춘 현대인들의 쉼터다.

특히, 치유의숲은 '백운산 치유의숲 센터'와 봉황, 돼지, 여우 등 백운산에 깃든 삼정 스토리를 살린 '치유의 숲길'을 활용한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백운산 치유의숲 센터는 2층 규모로 세미나실, 건강축정실, 명상·요가실, 힐링테마다실(족욕장), 아로마테라피실, 피톤치드 카페, 일광욕장 등을 두루 갖췄다.

전문 산림치유지도사가 진행하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청소년, 가족,

직장인 등 대상과 직군에 따라 내·외부프로그램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구성됐다.

광양목재문화체험장은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보며 나무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공간으로 동백공방, 매화공방 등 수준별 목공체험장과 나무상상 놀이터 등으로 꾸며져 있다.

백운산자연휴양림에 조성된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야영장 등 다양한 숙박시설도 취향과 낭만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특별한 쉼과 힐링을 선사한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 '광주온' 설문 통해 27건 정책 반영

시민소통채널 온라인 플랫폼  
광주문화예술회관 명칭변경 등 진행

광주시가 시민소통채널 온라인 플랫폼 '광주온(ON)'을 통해 27건의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7월 1일까지 총 38차례 '광주온(ON)'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기름 대책·물 절약 실천 관련 의견 수렴'과 '광주문화예술회관 명칭 변경',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의 설문이 진행됐으며 이중 27건의 설문조

사 결과가 광주시 정책에 반영됐다.

광주문화예술회관 명칭은 '광주예술의전당'으로 바뀌었으며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했다.

광주시는 현재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더현대광주', 어등산관광단지 '그랜드 스타필드', 광천터미널 일대에 '신세계 아트 앤 컬처파크' 등 3대 복합쇼핑몰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올해의 베스트10 우수 정책' '광주맛집' 선정 설문조사를 진행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풍경.

## 하동군, 하동읍 3곳 공원화 사업 추진

폐철도, 군민정원, 하동공원 대상

하동군이 하동읍 시가지 내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과 주민 휴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동읍 공원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사업 대상지는 하동읍 폐철도와 하동군청 군민정원, 하동공원이자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3곳을 이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하동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다.

먼저 군은 하동군청 주차장을 활용, 하동의 상질을 담고 군민과 함께 하는 '참여형 군민정원'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민정원은 컴팩트 매

력도시를 이어가는 중심 역할로서 하동의 자연,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군민 소통의 장이자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하동읍 폐철도는 덕천빌딩~섬진철교의 약 800m 구간에 높낮이 차를 낮추는 '하동읍 폐철도 공원 기본구상'도 계획하고 있다. 주변 지역과 높낮이 차에 따라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 단절하고 있어 평탄화를 통해 도심 경계를 허물고 주민이 소통하고 화합할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하동공원도 동선 계획을 수정하고 기존 자원들과 조화로운 배치 계획을 재수립해 하동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새롭게 정비한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 여수시민 59% "불꽃축제 장소변경 원해"

최적지로 소호요트경기장 등 꼽아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개최 관련 시민 설문 조사 결과, 축제 장소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59%로 나타났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개최 관련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1759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개최에 따른 중앙동 일대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 가중, 이순신광장에 집중된 행사로 거주민들의 피로감 해소, 기존 개최 장소의 해상

활용 공간 협소 등의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59%가 불꽃축제 개최 장소에 대해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고 답했고, 최적지로는 ▲소호요트경기장 앞 해상, ▲여수세계박람회장 앞 해상, ▲신월동 한화아어로스페이스 앞 해상 순으로 꼽았다.

또한 개최 장소 특화 관련으로는 1개 장소로 특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3%, 2개 장소로 순회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조사됐다.

이 밖에 개최 주기는 매년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81%, 격년제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17%로 집계됐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 순천시

#### 동천하구 농경지, 습지 복원 박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내 농경지를 습지로 복원하기 위해 토지매입 및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

순천 동천하구는 랍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있어 국제적으로 생태학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습지다. 그러나 하천부지의 농경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영농활동이 하천 생태계 오염을 심화시키고, 습지의 기능 상실로 이어지는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순천시는 '순천동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경작지를 습지로 복원할 계획이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 양산시

#### 5400만원 투입해 손주돌봄 지원

양산시가 총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7월부터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24~35개월 이하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돌봄 아동이 2명일 경우 월 30만원, 3명일 경우에는 월 4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가정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양산(경남)=손병호 기자



# ‘국내 포화’ 커피업계, 해외시장 진출 속도… 파이 키운다

**이디야커피 말레이시아 MF 계약 5년간 500호점, 연내 3곳 계획**

**메가커피 몽골 울란바토르에 1호점 할리스 日 오사카에 직영점 열어**

**“현지 이미 프랜차이즈 있어 철저한 현지화 전략 뒷받침 돼야”**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업체들이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커피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사업 진출을 본격화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사업자가 직접 해외에 진출하는 대신, 현지 시장에 밝은 기업을 통해 브랜드 가맹사업 운영권을 정해진 기간 동안 판매하는 방식의 계약이다. 가맹 사업자의 경우 투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로열티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진출국 시장동향, 법률분쟁, 상권 분석 등 절차들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디야커피의 파트너사는 현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과 유통 전문사의 컨소



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원두를 볶고 있다. /뉴시스

시엄 법인으로 이디야커피는 현지 주요 공급망 및 물류 관리 업체와 협력해 말레이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현지 커피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MF 파트너사는 향후 5년 내 말레이시아 200호점까지 확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상권 분석을 바탕으로 다수의 입점 후보지를 확보했으며, 연내에 3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이디야커피는 자체 로스팅 공장인 드림팩토리에서 생산한 원두와 원료를 직

접 말레이시아로 유통한다. 또한 ‘아메리카노’, ‘토피넛라떼’ 등 국내 인기 메뉴를 바탕으로, 현지 반응을 고려한 특화 메뉴 또한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진출을 토대로 이디야커피는 말레이시아의 전략적 위치와 활랄 시장을 활용해 전 세계 활랄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 앞서 지난 12월 괌에 오픈한 괌 마이크로네시아몰점 역시 관광객과 현지인들에게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이디야커피는 연내 괌 3호

점까지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메가커피(MGC커피(메가커피))도 최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글로벌 1호점을 내고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 100㎡(약 30평) 규모의 매장은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부에 있는 메가커피의 몽골 파트너 ‘아시아피마’ 본사 사옥 1층에 들어섰다. 메가커피가 해외 진출 국가로 몽골을 낙점한 것은 젊은 인구 구성비와 한국에 대한 높은 호감도 때문이다.

메가커피 측은 몽골 소비자들이 한국 문화와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기존에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진출 이유를 설명했다. 사측은 몽골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아시아와 미주까지 해외 시장을 진출할 방침이다.

할리스는 관리 리스크가 적은 직영점 형태로 해외 진출했다. 지난 5월 일본 오사카에 해외 첫 직영점 난바 마루이점을 열었으며, 당시 100여명의 대기인원이 발생했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할리스에 따르면 닷새 만에 6000명이 찾는 등 일본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할리스 관계자는 “일본은 세계 4위,

아시아 1위의 커피 소비 국가로 커피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장이고 한국 문화에 호감도가 높아 할리스의 첫 글로벌 진출 국가로 낙점했다”며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메뉴들로 구성해 현지에서 큰 인기”라고 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백다방은 이미 중국·싱가포르·필리핀·베트남 등에 진출한 상태고, 컴포즈커피는 지난해 9월 싱가포르에 첫 해외 매장을 열었다.

다만, 우려도 있다. 한 전문가는 “커피의 맛은 원두가 결정하는데 원두 생산지가 대부분 비슷하다보니 맛에 큰 차이를 내기가 어렵다”며 “이미 해외 각국에 유명 브랜드 커피 프랜차이즈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년간 신규 카페 수가 45% 늘어난 동안 폐업 카페 수는 18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 운영 했수도 짧아지는 추세다. 국제성이 5년간(2018~2022년) 사업 존속 연수를 조사한 결과 커피음료점은 평균 3년 1개월에 불과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하이트진로 켈리-헤드 협업 2030 소비자들과 소통 강화

경품팩 구매시 굿즈 쿠폰 제공 12~13일 양양서 풀파티 진행



‘켈리(Kelly)’와 스포츠 웨어 브랜드 ‘헤드(HEAD)’의 콜라베이션 제품. /하이트진로

더블 임팩트 라거 켈리가 여름 성수기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이종업계와의 협업을 선보인다.

하이트진로는 여름 시즌을 맞아 ‘켈리(Kelly)’와 스포츠 웨어 브랜드 ‘헤드(HEAD)’의 콜라베이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젊고 스포티한 패션 브랜드와의 만남을 통해 2030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즐거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 대형마트와 농협에서는 콜라베이션 경품팩을 판매한다. 경품팩을 구매하면 협업 의류와 굿즈를 제공하는 스크래치 쿠폰을 증정한다. 스크래치 행사를 통해 다채로운 협업 의류, 보스틴백, 티셔츠, 양말, 타올과 굿즈인 스페셜잔, 테니스라켓 오픈 등을 제

공한다. 경품팩은 360ml 캔맥주 8캔, 24캔 두 종류로 출시한다.

오프라인 프로모션도 선보인다. 오는 12~13일에는 양양에 위치한 비치클럽인 템플온더비치에서 켈리x헤드 풀파티를 진행한다. 풀파티에는 DJ라이프 등 국내 유명 DJ, 모델,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하며 DJ 파티는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7월중 양양 양리단길에서 협업 굿즈를 활용한 오프라인 프로모션도 함께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 ‘백설 육수에는 1분링’ 220만개 판매고

CJ제일제당, 출시 8개월 성과 매우 최우식 모델 광고영상 선보

CJ제일제당의 ‘백설 육수에는 1분링’이 출시 8개월만에 판매량 220만개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국물 1인분 기준으로 47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CJ제일제당은 이 기세를 몰아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배우 최우식을 모델로 한 디지털 광고 영상을 선보였다. 최우식이 부르는 중독성 있는 CM송으로 진행되는 이 영상은 ‘백설 1분링’을 활용해 각종 국물요리, 떡볶이 등 다양한 요리를 간

편하게 완성하는 모습을 담았다. CJ제일제당은 이를 통해 ‘심플 쿠킹’이라는 백설의 브랜드 지향점을 소비자에게 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백설 1분링’ 제품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CJ더마켓 기획전을 열고 있으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전국 주요 할인마트에서 1+1 할인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백설 육수에는 1분링’은 편의형 코인육수 제품으로 원하는 요리에 한 알만 넣으면 진한 육수를 낼 수 있다. 동전 형태의 기존 코인육수와 다르게 가운데가 뚫려 있는 ‘링’ 형태로 끓는 물에서 1분만에 녹는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 홈플러스 ‘AI 챗봇 서비스’ 선보여

사람과 대화하듯 맞춤 상호작용 가능

홈플러스가 신속·정확하고 고객 친화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연어 처리 기술 기반의 ‘AI 챗봇 서비스’를 2일 선보였다.

AI 챗봇은 머신러닝 기반의 높은 단어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단어와 언어로 표현되는 자연어를 간편하고 정교하게 분석해 응대하는 상담 서비스다.

단순 답변형 질문 외에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맞춤형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질문 의도를 파악해 사용자가 원하는 양질의 답변을 제공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활용 가능하



모델이 2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AI 챗봇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

고,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이번 AI 챗봇 서비스 기획 과정 간 부담이 큰 전화 상담 대신 간편한 채팅 상담을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했다. /최빛나 기자

## NS홈쇼핑, 육류 초특가 6일까지 ‘육육데이’ 진행

NS홈쇼핑이 매일 1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 몰과 모바일 앱에서 ‘육육데이’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육육데이’는 NS홈쇼핑 온라인몰과 앱의 ‘신선장터’ 코너에서 한우, 한돈 등 육류를 초특가로 판매하는 기획전이다.

‘육육데이’에서는 매일 아이디당 1회 받을 수 있는 10% 쿠폰을 적용해 기획전내 육류 상품을 알뜰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6% 추가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는 초특가상품을 하루 한가지씩 판매한다. 기획전의 10% 할인가격에 추가 6% 할인된 초특가로 만날 수 있는 상품은 2일 ‘농협안심한우 구이용 등심(500g)’ 1만8900원, 5일 ‘농협안심한우 불고기/국거리(600g)’ 1만3900원, 6일 ‘소돈가 1+한우 특수부위 구이 모듬3종(총600g)’ 2만6980원 등이다. /최빛나 기자

## HK이노엔 ‘컨디션’ 한정판 티셔츠 출시

HK이노엔이 다양한 분야와 협업한 마케팅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HK이노엔은 숙취해소제 ‘컨디션’ 출시 33주년을 맞아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와 한정판 티셔츠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HK이노엔에 따르면 이번 컨디션 티셔츠는 누구나 편하게 착용하기 좋은 오버핏 스타일로, 컨디션의 에너지 넘치는 브랜드 이미지와 나무13(TREE 13) 작가 특유의 감성을 담은 일러스트가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쿠광, 통합 프리미엄 브랜드 전용관 신설

가구·리빙, 레저 카테고리 추가

쿠광이 주요 카테고리 상품을 통합한 프리미엄 브랜드 전용관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쿠광은 지금까지 오디오, 식품, 키즈패션, 키친, 육아 등 일부 품목에 한해 프리미엄 전용관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가구와 리빙, 레저를 추가한 ‘통합 프리미엄 브랜드 전용관’

을 신설했다. 총 8개 카테고리다.

새롭게 선보인 대표 프리미엄관은 가구관이다. ‘의자계 에르메스’로 불리는 허먼밀러의 ‘뉴 에어론 풀’ 상품이 주목할 만하다. 허먼밀러 의자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인해 장시간 앉아있는 회사원이나 학생들이 갖춰야 할 필수품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이후 국내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 유통업계, 파리올림픽 앞두고 '스포츠 스타'로 팬덤 정조준

파워에이드, 펜싱 오상욱 등 발탁 유한양행, 높이뛰기 이상혁 선정 도미노피자, 월드컵 손흥민 모델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유통 기업들이 스포츠 팬심을 잡기 위해 선수들을 모델로 기용해 눈길을 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20년 국내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팬덤 경제의 부상'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지금 팬덤의 구매력은 아이돌그룹 차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앞날마저 흔들 수 있는 힘으로 여겨지며 물밑에서는 '팬심비'를 잡기 위한 브랜드들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다.

'팬심비'는 '팬심'에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가 더해진 용어로 팬심 대비 심리적 만족을 뜻한다. 유통 브랜드들은 어느 때보다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 시기에 스포츠스타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2024파리올림픽 공식 스포츠음료인 코카-콜라사 파워에이드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등 3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모델로 발탁하고 이들의 폭발적인 파워와 파워에이드가 어우러진 새로운 캠페인 '나만의 순간 멈추지 않는 파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세 선수 모두 여러 번의 국제대회를 통해 스타성과 함께 메달 가능성을 보여준 각 분야의 대표 선수다.

'도쿄올림픽 어벤져스'의 막내였던



파워에이드 모델 오상욱(왼쪽), 황선우(가운데), 신유빈 선수.

/한국 코카-콜라

오상욱 선수는 이번 시즌 '뉴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펜싱부문 파리올림픽 개인전 및 단체전을 노리고 있다. 황선우 선수는 자유형 100m, 200m, 개인혼영 200m, 혼계영 400m, 계영 4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계영 800m에서는 아시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수영의 '간판스타'다.

'국민 빼악이'로 유명한 신유빈 선수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복식 금메달을 포함해 메달 4개를 획득했던 한국 여자 탁구의 간판선수다. 파워에이드는 세 선수와 함께 촬영한 포스터 및 사진을 비롯해 세 선수가 출연하는 광고 영상 3편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유한양행은 현대인의 영양 요구를 고려해 설계한 프리미엄 복합 건강기능식품 '유한포텐업'을 출시하며 높이뛰기 국가대표 이상혁 선수를 모델로 선정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스마

일 점퍼'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올림픽 이후로도 각종 국제 대회에서 상위권 성적을 올리고 있어 이번 올림픽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한국인이 즐기는 스포츠는 다양하지만 팬덤의 강력함은 구기 종목에 따라 올 수 없고, 그중에서도 최고봉은 해외 진출 선수가 많은 '축구'다. 특히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중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은 남녀노소에게 사랑받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세계적인 축구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선정했다. 도미노피자는 "손흥민 선수처럼 건강하고 즐거운, 모든 세대가 사랑하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모델로 선정했다"고 선정 배경을 소개했다.

손흥민 선수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이자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홋스퍼 FC의 주장이며,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다. 2021-22시즌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골든부츠(득점왕)를 수상하는 등 다수의 전설적인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정관장 스테디셀러 브랜드 '홍삼톤'의 엠버서더로 월드 클래스 수준의 황희찬 선수를 발탁했다. 정관장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이자 울버햄튼 소속인 황희찬의 강렬한 '황소의 힘'과 정관장 홍삼의 '건강' 이미지가 맞아떨어져 황희찬 선수에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다고 밝혔다.

황희찬은 축구 국가대표 선수이자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울버햄튼 원더러스 FC에서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다. 2010년에 U-14 대표팀에 발탁된 이후로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으며, 올 시즌은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 최다골인 13골 3도움을 기록해 현지 언론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삼성바이오에피스 '피즈치바' 美서 허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피즈치바'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성분명: 우스테키누맵)'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피즈치바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적응증은 오리지널 의약품인 '스텔라라'와 동일하다. 피즈치바는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췌장성 대장염 등에 쓰인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피즈치바를 통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SB4,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SB2,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SB5 등 중앙괴사인자 알파(TNF- $\alpha$ ) 억제제 3종에 이어 '인터루킨 억제제'까지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오뚜기 CGV용산아이파크몰서 '해피남남라면가게' 운영

오뚜기가 국내 최대 규모 영화관 'CGV용산아이파크몰'과 협업해 진라면 등 라면 대표제품은 물론 공식 캐릭터를 활용한 옐로우즈 포토존 등 색다른 경험이 가능한 브랜드 공간을 운영한다.

이번 협업은 MZ세대 등 젊은층은 물론,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영화관에 방문한 관람객이 현장에서 조리된 오뚜기 라면을 직접 맛보고 공식 캐릭터 옐로우즈로 귀엽게 꾸며진 브랜드 공간에서 차별화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우선, 음식을 즐기는 공간인 씨네팝(CINEPUB)에서 '해피남남 라면 가게'를 운영하여 오뚜기 대표 라면 제품을 선보인다. 진라면 순한맛, 마라진라면, 마라 짜슐랭, 마술랭 마라탕면 등 총 4종의 라면을 맛볼 수 있다. 특히 마라 진라면과 마라 짜슐랭은 오뚜기의 마라장을 사용한 특별 레시피로 조리하여 이색적인 라면을 즐길 수 있다.

오뚜기 공식 캐릭터 옐로우즈의 세 캐릭터(뚜기, 마요, 차비)와 시그니처 색상인 옐로우(노란색)를 활용해 꾸민 옐로우즈 포토존도 눈길을 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삼성바이오로직스, 1.5조 수주 '역대 최대'

전년도 전체 수주 금액의 40% 수준 올해 연 누적 수주 금액 2.5조 돌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소재 제약사와 약 1조4367억원(10억6000만 달러)의 초대형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지난 한해 총 수주 금액(3조5009억원)의 40%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지난해 6월 체결된 투자의향서(LOI)의 본계약으로, 1년여 만에 LOI 대비 1조3164억원(9억4749만 달러) 증액된 규모로 체결됐다.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다.

## 광동제약,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프리시전바이오' 인수

아이센스 등 보유 주식 30% 인수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사업 확대"

광동제약은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프리시전바이오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만 6개월 만에 연 누적 수주금액 2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3월 첫 계약을 시작으로 글로벌 제약사와 총 7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6건은 고객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계약의 생산 물량 등을 늘린 증액 계약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6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압도적 생산능력, 품질 경쟁력, 트랙레코드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18만 1 규모의 5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5공장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4만 l의 생산능력을 확보한다.

품질 측면에서는 올해 6월 기준 누적 규제기관 승인 건수 278건을 기록하고, 지난해에는 99%의 배치(Batch)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의약품 제조·관리되는 전 과정에서 뛰어난 품질 경쟁력을 입증하며, 다수의 성공적인 트랙레코드를 확보하고 있다. 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ADC(항체 약물 접합체) 전용 생산시설을 건설 중으로 연말까지 가동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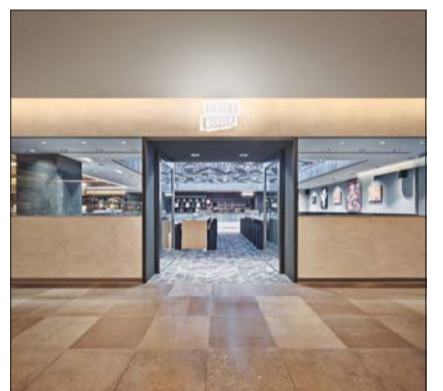
/이세경 기자 seilee@

광동제약은 프리시전바이오의 최대 주주인 아이센스 등이 보유한 주식 29.7%를 인수할 계획이며, 인수금액은 약 170억 원 규모다.

프리시전바이오는 인체·동물용 검사기, 카트리지를 제조 및 판매하는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체외진단기기 및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목적으로 인수를 결정했다"며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현대그린푸드\_고든램지 스트리트 버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현대백화점

## 현대그린푸드 식재 유통사업 확대 속도

현대그린푸드가 전문성과 맞춤형 서비스를 앞세워 글로벌 프리미엄 외식 브랜드와 식재 공급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식재 사업 확대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최근 글로벌 프리미엄 버거 레스토랑 '고든램지 버거'·'고든램지 스트리트 버거'의 국내 매장에 식재 일체를 공급하는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고든램지 버거는 세계적인 스타 셰프 고든 램지가 지난 2012년 론칭한 프리미엄 버거 레스토랑으로, 패티부터 채소·소스 등 모든 재료에 최고 품질만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현대그린푸드는 고든램지 버거 대표 메뉴 중 하나인 헬스키친 버거의 주요 재료인 '아보카도'를 공급 당일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후숙이 완료된 상태로 공급한다. 일반적으로 2~4일 정도 필요한 후숙 기간을 없애 고객사의 운용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교보문고 4주연속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TOP 10

원작 도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3개국 판권 계약 완료

밀리의서재  
밀리로드  
베스트 1위

# 뮤지컬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저마다의 고민으로 축축했던 마음이 뽕송뽕송해지는 곳  
여기는 빙글빙글 빨래방입니다



## 2024. 06. 01. OPENRUN 대학로 후암씨어터

원작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팩토리나인, 작가 김지윤)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김기석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음향디자인 안형록 | 영상디자인 김태윤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주최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제작 (주)이엘엔터테인먼트/극단지우 |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 예매처 인터파크 | 문의 02-764-9102



**SKB, 초고속인터넷·IPTV 서비스품질 1위**

SK브로드밴드는 2일 한국표준협회 주관하는 2024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서 초고속인터넷 10년 연속, 인터넷 TV(IPTV) 부문 6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2024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인증 수여식에서 (왼쪽부터) 최영아 SK브로드밴드 고객가치혁신담당과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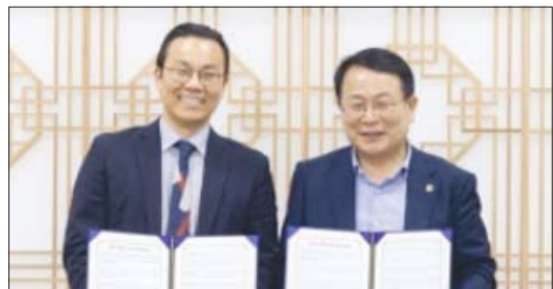
**지엄한마음재단, 인천 중부동공원에 놀이기구 기증**

지엄한마음재단코리아는 지난 1일 인천시 부평구 중부동공원에서 턱이 없는 회전 놀이기구 1대를 기증하고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한마음재단 윤명옥 사무총장(오른쪽)을 비롯해 한국지엄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무장애 놀이기구를 체험하고 놀이터 주변 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지엄한마음재단코리아



**KB국민은행, 폭우 대비 환경정화 봉사활동**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여름철 폭우를 대비해 반지하 및 저지대 주변 빗물받이 인식 개선 스티커 부착 및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KB국민은행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해 상도동 및 노량진동 일대의 쓰레기 수거와 오염물질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인식 개선 스티커를 부착했다. /KB국민은행



**이랜드뮤지엄-익산시, 문화예술산업 활성화 맞손**

이랜드뮤지엄이 익산시와 지난 1일 세계문화예술산업 소장품 전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교류 전시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기관 유치 및 홍보 ▲기타 행사 등 각 기관의 발전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랜드뮤지엄 한우석 대표(왼쪽)와 정현을 익산시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랜드



**금투협, 한사랑마을 후원금 2000만원 전달**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임직원 75명이 경기도 광주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박순호 회장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매니지먼트 그룹 도약”**

〈세정그룹〉

**세정 ‘창립 50주년’ 기념식**

박형준 부산시장 등 기념식 참석 박 회장, 100년 기업 비전 선포

패션기업 세정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세정은 지난 1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부산광역시 롯데호텔 부산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고 2일 밝혔다.

세정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매니지먼트 그룹’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역량 있는 외부 전문가와의 연대 ▲AI 및 디지털 신기술 선제 도입 ▲글로벌 브랜드 육성 ▲나눔 상생 경영의 계승 등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이 1일 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세정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세정

4가지 전략을 내세웠다.

세정에 따르면, 역량 있는 전문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AI를 비롯한 다양한 신기술을 선제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나눔과 상생의 경영도 이어가고 고객들이 신뢰하는 타임리스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세정 측의 설명이다.

**스타얼라이언스, 세계 최고 ‘항공사 동맹체’ 선정**

아시아나 등 회원사 47개 부문 수상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세계 최초·최대 항공사 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가 영국의 글로벌 항공 컨설팅·평가 기관 스카이트랙스가 선정하는 월드 에어라인 어워즈에서 ‘세계 최고 항공사 동맹체’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문을 연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의 스타얼라이언스 라운지는 ‘최우수 동맹체 라운지’로 선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이 ‘한국의 최고 객실승무원’ 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스타얼라이언스의 16개 회원 항공사가 올해 총 47개 부



스타얼라이언스 테오 파나지오톨리아스 대표가 세계 최우수 항공사 동맹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에서 수상했다.

테오 파나지오톨리아스 스타얼라이언스 대표는 “수백만명의 고객이 투표를 통해 최우수 항공사 동맹체로 인정해 준 것에 대해 겸허한 마음

으로 감사드린다”며 “스타얼라이언스 모든 구성원이 앞으로 더욱 높은 가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트랙스 월드 에어라인 어워즈는 영국의 세계 최대 항공사 서비스 평가 기관인 스카이트랙스가 주관하는 연례 시상식으로 ‘항공산업의 오스카’라 불린다. 전 세계 탑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를 통해 상이 결정된다. 이번 시상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0개국 이상의 고객 2142만여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수상이 결정됐다.

/양성운 기자 ysw@

**금융위, 내달 21일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카카오뱅크 등 77개 금융회사 참가

금융권 최대 채용행사인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내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가 내달 21일부터 22일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개사와 IBK시스템·신한D

S·우리FIS·하나IT 등 금융IT기업 4개사를 포함해 총 77개 금융회사가 참가한다.

박람회는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현장 박람회) 방식으로 열린다.

박람회 기간동안 12개 은행은 현장 면접을 실시한다. 12개 은행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이다.

현장면접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서류 접수한 뒤 서류전형 통과 가능해 가능하다. 박람회 현장면접에서 우수 면접자로 선발되는 경우 향후 은행 채용 지원서 서류전형이 면제된다.

또 17개 금융공기업은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그외 48개 참가기관은 채용상담을 진행한다. 모의면접과 채용상담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야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에몬스,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1위**

가정용 가구 부문 7년 연속 선정

에몬스가 한국표준협회(KSA) 주관 ‘2024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KS-WEI)’에서 가정용 가구 부문 7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2일 에몬스에 따르면 ‘2024년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는 총 119

개 상품군, 391개 기업(브랜드)를 뽑고,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7만8000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5개 부문(건강성, 환경성, 안정성, 충족성, 사회적) 평가를 통해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에몬스는 가정용 가구 부문

최고 점수를 획득해 지난해에 이어 7년 연속으로 1위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에몬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에몬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가 반영돼 더욱 뜻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과 품질, 서비스로 고객의 일상에 언제나 함께하는 에몬스가 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신입직원 임용식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4년 상반기 신입직원 39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에 참여한 박성호 이사장은 소진공에서 사회 첫발을 내딛게 된 신입직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지난 5월 3일부터 진행한 채용예선 행정사무일반 28명, 행정사무전산 5명, 행정사무채권관리 6명이 소진공 일원이 됐다. 여기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장애인과 고졸자 채용도 함께 했다.

박성호 이사장(사진)은 “소진공의 미래로 이끌 새로운 인재를 맞이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신입직원들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문가로 성장하여 공단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진공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키움증권**

**‘키움과함께’ 캠페인 전개**

키움증권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7월 한 달간 전 임직원이 함께하는 1억 보 걸음기부 캠페인 ‘키움과함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걸음기부 캠페인은 걷기를 통해 일상 속에서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활동이다. 키움증권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7월 한 달 동안 1억보를 기부하는 게 목표다.

키움증권은 임직원이 1억보를 달성하면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에 2000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인사**

◆하은은행(승진) ◇부장 △이사회사 무국 이희태



#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2024.07.17(수)  
14:00~17:00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前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  
前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前 미래에셋투자외연금센터 대표  
前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 CIO 및  
경영관리부문 대표이사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미국 주식 관련 투자 전문 애널리스트

● 행사개요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주 제: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일 시: 2024년 7월 17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록: 사전등록 무료(현장등록 5만원)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 국내외 경제상황 진단과 금융투자시장 전망
강연	15:00~15:40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 100세시대 자산관리 전략
	15:40~16:2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 부동산시장 진단과 투자 전망
	16:20~17:00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 해외주식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알권리 위축'... 시민들은 안다



기자 수첩

김현정  
(정책사회부)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시청 직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서울정보소통광장'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다. 서울정보소통광장은 도시관리·안전·복지 등 시 내부에서 생산된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이다.

'중구 교통사고(7. 1. 21:27경) 관련 시장 지시사항 알람'이라는 제목의 결재 문서가 눈에 띄어 클릭했다. 안에는 '1. 2024. 7. 1.(월) 21:27 중구 태평로2가 113-1 시청역사거리 교통사고로 인한 다수사상자 발생 관련, 2. 사고 대응 및 수습·복구를 위한 시장 지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파하오니 해당 기관(부서)은 시행에 철

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 지시사항이 나오겠군.' 하는 생각을 하며 다음 줄로 시선을 내렸다. 허나 비공개처리 돼 있었다. 서울정보소통광장 내 행정 정보의 공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3개 항목으로 분류돼 게시된다. 중구 교통사고 관련 시장 지시사항 알람 공문은 '부분공개' 처리돼 있었지만, 사실상 '비공개'로 보는 게 맞다. 해당 문서에서 알아낼 수 있는 중요 정보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 너머서울 등 9개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오세훈 시장의 민 배제 불통·편파 행정이었다.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조례상 회의 공개가 원칙임에도 비공개한 것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

겠다며 추진한 한강 수상버스사업의 심사가 제대로 진행 및 공개되지 않은 점 ▲'리버버스 도입 추진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 등 다수의 알권리 위축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같은날 오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시민단체는 때로는 일반 시민들의 시각과 유리될 때도 있다"며 "10년 전 토건 반대를 구호로 외쳤을 때 멋있었다. 사람이 먼저다 외칠 때 멋있었다. 그 결과가 어땠나. 시민들은 안다. 시민단체는 애써 외면하지만 시민들은 안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예산을 많이 쓴다고 비판하면 그건 팩트가 틀린 비판"이라고도 했다. 서울시가 정보공개에 인색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근거로 든 팩트를 애써 외면하는 게 누군지도 시민들은 안다.

/hjk1@metroseoul.co.kr

## 이화의료원 “남녀 모두를 위한 ‘성차 의학’ 연구”

이화의료원-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과학기술인 육성, 국제협력 추진 MOU 성별 고려한 의학으로 젠더혁신 이룰 것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남녀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이라는 포용적 가치에 기반을 둔 연구에 나선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6월 28일 이대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이화의생명연구원이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와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화의료원과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는 '성차 의학'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성별 특성을 간과한 연구 데이터 적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손실이 많다는 것이 이화의료원 측의 설명이다.

이밖에 양 기관은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교류 ▲특별전시회, 강연회, 연례회의, 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을 약속했다.



지난 6월 28일 열린 '이화의생명연구원-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업무협약식'에서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소장(왼쪽)과 이향은 이화의생명연구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양 기관은 향후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국제협력 등 사업협력 추진을 위한 세부 협력과 실무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향은 이화의생명연구원장은 “남녀의 성별을 고려해 의학을 연구하고 진료를 해

온 것은 이화의료원이 국내 최초였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기술인들을 육성·지원하고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지원해 미래까지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의 젠더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향하 기자 mlee236@

###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 5월 2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자식이 짝을 데려오니 마음이 흐뭇하다. 48년생 세상에 나의 스승이 아닌 것이 없다 했다. 60년생 남의 말은 사함을 가지 않으니 신경 끊어라. 72년생 사랑도 서로 만들어 가는 것인데. 84년생 시작은 좋으나 끝은 흐지부지될 수.



37년생 자녀에게 밀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지 않음지 체크. 49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61년생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73년생 자존감을 나를 지켜주는 힘이지만 우기지는 마라. 85년생 구슬수를 조심하고 특히 돈거래에 주의.



38년생 구름만 잔뜩 끼어있고 비는 오지 않는 형국. 50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 62년생 삼재판처럼 조심하여 평온을 찾자. 74년생 일과가 너무나 바빠도 우편물은 좀 더 살펴라. 86년생 새로운 것을 배워보자.



39년생 실례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 51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63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지기 쉽다. 75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 온다. 87년생 자식 기대에 때가 아니니 조금 더 기다려라.



40년생 약속 앞에서 마음이 혼란하면 독서로 달래보자. 52년생 열정과 활력이 넘치는 날. 64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즐거운 마음으로. 76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남쪽으로 여행을 가보자. 88년생 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라.



41년생 잠시 멈춰서 주변을 돌아보자. 53년생 깊은 밤을 지내면 찬란한 새벽이 온다. 65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는다. 77년생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할 일 아니다. 89년생 흥남생에 땅을 사면 주변의 원망을 듣는다.



42년생 정보획득이 중요하니 컴퓨터를 배워 발전시키자. 54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성숙 되는 것. 66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짐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78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쓰자. 90년생 오늘 나를 위해 지출을 해보도록.



43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써라. 55년생 일체유심조로 세상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겠는가. 67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푸르다. 79년생 공부로 위기탈출 해야. 91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하자.



44년생 결혼생활은 배려와 존중이 가장 중요. 56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비켜가라. 68년생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한다. 80년생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라. 92년생 삶은 계속되고 꿈꿀 시간은 많으니 차분히 계획.



45년생 힘든 시절을 고생한 배우자의 산소 가는 날. 57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청의력이 빛을 발한다. 69년생 헛된 욕심이 화를 부른다. 81년생 이직했지만 기대가 너무 커서 서운함을 느낀다. 93년생 주변 친구에게 마음 아픈 소식이 들려온다.



46년생 자녀와 교감을 가져라. 58년생 자신 손안에 이미 열쇠는 있다. 70년생 당장은 부족해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듯. 82년생 삶은 수확적이며 과학적인 부지런함으로 움적여보라. 94년생 만나기 어려운 기회는 아니지만, 항상 기회는 온다.



47년생 남이 먼저주는 희망에 공연히 기대가 크다. 59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날. 71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 주는 것이 유리. 83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멀어지지 않는다. 95년생 마음에 없는 칭찬은 차라리 하지 말도록.



## 김상희의四季

자리이다

부모의 몸에서 입태·胎·되면서 인연(緣)은 시작되니 탄생 전에 팔자는 예고된다. 팔자 합 중에서 합이 없으면 서로가 타인이다. 월과 시에 합이 있으면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 직장 재물 수명 사는 집 속에서 물질 곳 등 인연법 안에서 작용한다. 명당 명당 하는데 명당이 팔자가 좋아야만 찾가지고 명당 노릇을 하게 된다. 그러기에 자기 사주팔자를 펼쳐보는 것일 거다. 어느 풍수장이는 상담자의 사주를 안 본다.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무덤 집 땅 재물 등 관련된 얘기는 무슨 말인들 하겠으나 박사라 한들 사주풀이가 어렵고, 끝도 없고 어긋나면 미신 사이비란 얘기가 바로 나오니 이해는 간다.

그 팔자의 부호가 드러나 있는 관상이라도 봐야만 평과의 인연을 찾아볼 수 있다. 여하튼 직장에서 상사와 자주 충돌하는 사람이 있다. 상사가 무리한 업무를 지시하면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관운이 따르지 않는다. 어쩌다 관운이 생겨도 곧바로 시들고 만다. 실력이라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실력이 있고 소신이 강하고 그 결과로 자주 충돌이 생기기 본인도 직장도 손해다. 본인은 실력 발휘할 기회를 놓치고 직장은 업무 실력이 뛰어난 직원을 놓치게 된다. 어느 쪽을 봐도 서로 득 될 게 없다.

불교에서 자리어타라는 말이 있다. 자리란 자신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이타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즉 남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자리어타라는 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발 물러서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하는 일이 된다. 실력과 소신과 자기주장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운을 스스로 막아버린다면 실력을 보여줄 기회까지 없어지니 내 팔자를 상식선에서라도 이해하기 바란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

Studoku 365 puzzle advertisement with grid images and contact info for Argos9.

Metro Myeongdong branch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ervices.

# 2.8만명 수용 K-팝 전문공연장 창동역 인근 '서울아레나' 첫 삽

서울시, 5만㎡ 부지에 3120억 투입  
중형공연장·영화관·상업시설 구성  
연간 관람객 250만명... 2027년 준공

서울 최초의 K-팝 중심 복합문화 시설이자 동북권 지역 경제를 견인할 '서울아레나'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2일 오후 도봉구 창동 서울아레나 건립 예정지에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동역 인근 5만㎡ 부지에 들어서는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80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1만8269석 규모의 K-팝 중심 음악 전문공연장, 최대 7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중형 공연장, 영화관,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그간 K-컬처는 전 세계에 통하는 하나의 대중문화로 자리 잡은 반면, 그에 걸맞은 음악 전문공연장은 전무했다"며 "이 때문에 K-팝 가수들은 국내 공연 때마다 공연장 섭외에 어려움을 겪었고, 해외 팝가수들의 내한 공연도 빈번하게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글로벌 유명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유치할 수 있도록 초대형 공연을 위한 세트 설비 반입이 가능하게 서울아레나를 설계했다. 가지각색 형태의 무대를 빠르게 설치·해체할 수 있는 전문 장비를 도입해 무대 설치 소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 들어서는 '서울아레나'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서울아레나가 시설 조성·운영·유지 관리를 담당한다. 총 3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7년 3월 준공이 목표다.

시 관계자는 "서울아레나가 들어서는 창동 일대는 기존 지하철 및 GTX-C 노선 신설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에 힘입어 동북권의 새로운 대중교통 요충지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대규모 공연시설 활성화에 필수 요소인 접근성까지 확보한 만큼 국내외 K-팝 팬들이 서울아레나를 편하게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시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에 연간 국내외 관람객 250만명을 유치, 새로운 공연문화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아레나가 동북부 지역의 성장을 견인함과 동

시에 문화공연의 명소이자 K-콘텐츠 성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아레나는 한류 관광의 메카로서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이끌고 매력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동북권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면서 "전 세계 한류 팬들과 함께 K-팝 공연을 관람하는 그날까지 서울아레나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는 "카카오는 글로벌 K-팝 팬들이 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K-컬처와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특히 서울아레나가 도봉구, 나아가 서울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개발·확대 나서

9월 '시니어 일자리지원센터' 개소  
하반기부터 '시니어잡 챌린지' 시작

서울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해 어르신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다양한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개발 ▲어르신-일자리 매칭 통합 플랫폼 '시니어인력뱅크' 구축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노인 인구 증가와 변화하는 산업구조, 기업 수요 등을 반영한 어르신 일자리 컨트롤타워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지원센터(가칭)'를 오는 9월 개소한다. 센터는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기획·개발부터 취업 상담, 기업 맞춤형 취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알선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센터는 시니어인턴십 운영, 일자리 수행기관 공모 등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도 맡는다.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형 시니어 인턴십 '시니어잡(Job) 챌린지'가 시작된다. 이는 근로의지와 역량이 있는 서울 거주 어르신(60세 이상)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의 직무 훈련과 일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인턴십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며, 인턴 종료 후엔 일자리를 연계해준다.

이를 위해 시는 고령자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민간 일자리를 확대한다. 기업에 즉각적으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구직 어르신과 구인 기업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시니어 전용 플랫폼 '시니어인력뱅크(가칭)'를 구축해 내년 중 오픈할 예정이다.

시니어인력뱅크는 민간·공공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플랫폼으로, 교육, 인턴십 정보 등 구직 시 필요한 내용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 KTX광명역 일대 국제·행정 중심지 육성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광명시는 KTX광명역이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인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사업 후보지를 공모하고, 16곳을 선정 발표했다. 시는 KTX광명역 일대를 국제·행정 업무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이번 공모에 신청해 후보지로 선정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KTX광명역 일대가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광명역세권을 국제·행정 업무 중심지로 육성하며 서부권 중

심도시로의 도약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앞두고 사전에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KTX광명역 주차장부지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올해 1월에는 '광명역세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왔다. /광명(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교직원 입시비리 첫 적발시 정원 5% 감축

교육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령안  
1차 위반 5%, 2차 위반엔 10% 감축

앞으로 교직원 2명 이상이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해당 대학은 최대 5%의 정원 감축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학이 입시비리를 처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차 위반 시부터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을 처분하고 2차 위반 시에는 감축 범위가 최대 10%로 늘어난다.

중전 입시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1차 위반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모집정지는 입학정원이 유지돼, 추



교육부 청사

후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원 감축과는 다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서울대·숙명여대 등 주요 대학에서 음대 입시비리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음대 교수들은 금품을 받고 수강생들에게 입시에서 가점을 준 혐의다. /이현진 기자 lhj@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선발 자기소개서를 입시 전형에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성인학습자는 30세 이상 또는 전문대에 입학할 25세 이상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다.

지난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를 전형 자료로 쓸 수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과 성인학습자에 예외를 뒀다. 바뀐 제도는 내년 9월 하반기 전형부터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라는 중요한 대입 환경 변화에 대학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5 | 해질 / 19:57

7월 3일 (수)  
음력 : 5월 28일

수도권 날씨  
23 ~ 2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2/28, 동두천 22/27, 가평 22/28, 파주 22/28, 서울 23/27, 양평 23/29, 인천 22/25, 수원 23/27, 용인 23/27, 평택 23/2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뉴스비디오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프랑스 극우 돌풍에 유럽 충격...총선 코앞 영국 '노심초사' /사진 뉴스스  
▲ 라인야후 '단기간 자본이동 어려워' 답변에 日총무상 "필요시 추가대응"

▲ 중국 공산당원 작년 말 9900만명, ...올해 1억 돌파 전망  
▲ 시진핑, SCO 참석차 카자흐행...한 달 반새 푸틴과 또 회동



▲ 트럼프, 대법원 '면책특권' 인정 직후 '성추문 재판' 유죄 무효화 시도  
▲ 美 민주당 '잠룡' 휘트머 "바이든 100% 지지" 갈등설 부인 /사진 뉴스스



커피업계  
해외시장 진출 속도  
파이 키운다  
니



Life

유통업계  
스포츠스타로  
팬덤 정조준  
L2



# “부작용 걱정 없는 천연물 신약... 글로벌로 영역확장 박차”

## ☆ 빛나는 인터뷰

### 설상호 아피메즈 연구소장

‘빛나는 인터뷰’의 다섯 번째 주인공은 인스코비 자회사 아피메즈의 설상호 연구소장이다. 바이오 기업 아피메즈는 국내 1호 천연물 신약이자 국산 신약 6호인 골관절염 치료제 ‘아피톡신’을 보유하고 있다. 아피메즈가 최근 ‘아피톡신’에 이어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새로운 천연물 신약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설상호 아피메즈 연구소장을 만나봤다. 설상호 연구소장은 류마티스 내과 의사 출신으로, 천연물 기반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경험을 가진 전문가다.

#### ◆아피톡신은 꿀벌의 봉독에서 유래한 물질로 만든 주사제다. 왜 봉독인가.

아피톡신은 벌의 침에서 추출한 독성 성분을 정제하고 동결건조해 만든 전문의약품이다. 아피메즈에 따르면 수술 없이 아피톡신 처방으로 통증을 치료하고 완화할 수 있다. 아피메즈는 지난 2023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아피톡신 재판매를 위한 허가변경을 승인받아 올해 1월부터 판매에 돌입했다.

설상호 연구소장은 “봉독은 동식물의 자연적인 독성 성분 중 하나다. 봉독의 주요 성분은 펩타이드인 멜리틴과 효소인 포스포리파아제A2(PLA2)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멜리틴은 항염증효능을 가지고 PLA2는 면역세포에 작용하는 기전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용량으로 주사하면 관절이나 근육의 염증이 빠르고 강력하게 작용해 염증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이는 아피메즈가 현재 아피톡신 적응증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존 적응증인 골관절염을 비롯해 다양한 염증성 관절 질환 치료에 아피톡신을 활용해 지속형 항염증 치료제로서의 아피톡신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방침이다.

#### 내과 의사 출신 천연물 신약개발 전문가 꿀벌 봉독 유래 물질로 만든 ‘아피톡신’ 체내 부작용 없이 염증치료, 통증 완화 FDA 임상 3상 추진... 미국 상장 시도

설 연구소장은 “아피톡신이 최소 관절 질환에 대해서라면 스테로이드 성분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은 만성 질환 환자만큼 약물을 장기 복용해야 하는데, 이때 약물의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내약성, 중독성, 기타 장기에 미치는 부작용이 없다는 특징은 아피톡신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것이 설 연구소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아피메즈는 살아있는 세포에 염증을 유발시켜 스테로이드 약물 중 가장 강력한 효능으로 알려진 덱사메타손과 아피톡신의 항염증에 대한

효능을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능평가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아피메즈는 미국에서 아피톡신의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임상도 추진 중이다. 신경세포에 발생한 염증 개선에 나선 것으로, 현재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서(IN D) 승인을 받은 상태다.

#### ◆“천연물, 기존 약물처럼 독성 없어 유리... 체내 흡수율 높이는 연구 집중”

설 연구소장은 우선 “파이프라인 측면에서는, 천연물 의약품으로서 차기 아이টে็ม으로 식물 추출물로 항류마티스 약물을 개발하고 있다”며 “기존 항류마티스 약물의 단점인 간과 신장 독성이 없다는 차별점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원료 스케일업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약물이 체내에 잘 흡수되도록 하는 플랫폼 기술과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들만 뽑는 정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 연구소장은 천연물에는 많은 약용성분이 있는데, 이런 약용성분들은 대부분 분자량이 커서 체내 흡수가 쉽지 않다는 문제를 짚었다.

그는 “아피메즈의 NAS(천연물 성분 흡수율 및 부작용 개선 시스템) 기술을 이용하면 체내 흡수율을 크게 올릴 수 있다. 각종 소화효소에 분해되지 않도록 막아준다거나, 장벽 세포 간격을 늘려 투과율을 높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설 연구소장은 선택적 천연물 추출 기술로 REM기술(다공성 레진 추출법)을 소개했다.

그는 “REM기술은 천연물 내에서 특정 성분만을 뽑아내기 위한 기술이다. 다양한 레진을 이용해 좋은 성분만을 뽑아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성분을 제거하기도 한다. 아피메즈는 10여종의 레진을 보유하고 있어 추출하고자 하는 성분의 전기화학적 성질에 따라 레진을 선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2570여 천연물 빅데이터 보유... 확장성 무궁무진

설 연구소장은 천연물 연구개발에서 중요한 점은 “다양한 천연물에 대한 기본 정보와 품목 선정”이라고 답한다. 현재 아피메즈는 2570여종의 천연물에 대한 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매 반기별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어떤 천연물에 접근할지, 어떤 성분에 집중할지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또 의학적 미충족 수요 또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설 연구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예를 들면 아피톡신을 정형외과 의약품으로만 개발할지 아니면 내분비과와 협력할지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그는 “봉독 핵심 성분인 멜리틴의 경우에도 암 세포를 사멸시키는데, 항암제 분야에서 응용한다면, 멜리틴을 암 세포까지 도달 가능하게 하는 기술, 멜리틴이 암 세포를 선택적으로 표적하게 하는 기술 등과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식물 추출물로 항류마티스 약물 개발 중 자사 NAS 기술 이용해 체내 흡수율↑ 고속성장 중인 중국 의약품 시장 대비 천연물 활용해 인류 건강에 기여하고자

#### ◆세계 최대 천연물 의약품 진출 위해 美 상장 준비

아피메즈는 올해 1월 미국증시 상장을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아피메즈의 미국 상장 시도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아피톡신’의 미국 임상 3상 완주를 위해서다.

특히 아피메즈는 골관절염과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연구 및 임상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상장을 추진, 상장 이후 미국에서 임상 3상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 연구소장은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 “미국 천연물 의약품 시장은 현재 전 세계 최대 규모다. 대략 90억 달러, 한화로는 12조원 수준이다. 생식기 사마귀 치료제인 ‘베러젠’, 에이즈 환자에 쓰이는 지사제 ‘폴리자크’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서는 천연물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 ◆국내 9배 시장 ‘만리장성’ 넘기 위해 품질향상

설 연구소장은 중국 의약품 시장의 성장세에 대해 “중국 의약품 시장은 이미 250조원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 전체 규모가 26조원이라고 봤을 때, 중국은 우리의 9배가 넘는 셈이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 많은 제약사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에 대한 장벽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 이 장벽을 넘어 중국 현지엔진

출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계의 가까운 미래 과제일 것이다. 한국의 기술력과 GMP(제조·품질관리기준) 수준이라면 충분히 중국 시장에 도전해 우리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아피메즈도 중국 시장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QbD(의약품 품질 고도화) 시스템의 중요성도 알렸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선제적으로 QbD를 도입했고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QbD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호 연구소장은 “미국, 중국, 인도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상호 간 벗어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미국 진출만큼 중국이나 인도 시장을 정조준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의 순서에 차이가 있을 뿐 결과적으로 의약품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유사하게 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 ◆“신이 주신 천연물로 국경 없는 의료 발전 이룰 것”

설 연구소장은 레지던트 1년 차 시절을 떠올렸다. 설 연구소장이 지난 2002년 가을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할 때 처음 맡은 임무가 천연물 신약의 임상시험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었다. 이후 지금까지 천연물 연구에 몰두하게 되면서 천연물은 설 연구소장 개인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천연물에는 대자연의 법칙이 있다. 어떤 약용 식물을 먹었을 때 우리 몸 속에서 과하지도, 모자르지도 않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천연물의 유효 성분에는 ‘당’이 붙어 있는데 배당체라고 부른다. 배당체는 수용성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빠르게 배출될 수 있어서 천연물로 병도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원리가 자연스럽게 성립하게 된다.”

설상호 연구소장은 의사로서 자신의 의학이 인류의 건강과 질병 극복에 기여하고 전 세계 소외된 곳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지금 천연물 신약 개발에 역량을 쏟아 부은 의료 현장에서 그는 그 꿈을 이루고자 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아피톡신 /아피메즈

## BS1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영 언론 예상한 손흥민의 미래 “1년 연장 옵션 발동→2025년 매각”  
▲‘상대 모욕’ 세리머니 벨링엄...유럽 축구연맹, 조사 나선다 /사진 뉴시스

▲NBA 톰슨, GSW 떠나 댈러스로... 영구결번 결정  
▲SSG, 기존 외인 투수 엘리야스와 함께 간다...시라카와와 결별



▲문체부, 파리올림픽 선수단 지원 확대...유인촌 장관 “좋은 성적 기대”  
▲‘대세’ 박현경, 15년만에 KPGA 3개 대회 연속 우승 도전 /사진 뉴시스